

분석보고서

#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분석

2019. 12.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1장 분석 개요 .....                    | 1  |
| 1. 배경 및 목적 .....                   | 3  |
| 2. 분석 방법 .....                     | 3  |
| 제2장 충남 교통사고 실태 분석 .....            | 3  |
| 제1절 충남 교통사고 분석 .....               | 3  |
| 1. 교통사고 발생건수 .....                 | 3  |
| 2. 교통사고 사망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6  |
| 3. 교통사고 부상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8  |
| 제2절 충남 15개 시·군 교통사고 분석 .....       | 10 |
| 1. 교통사고 발생건수 .....                 | 10 |
| 2. 교통사고 사망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13 |
| 3. 교통사고 부상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15 |
| 제3장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분석 .....      | 17 |
| 제1절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분석 .....         | 17 |
| 1. 교통사고 발생건수 .....                 | 17 |
| 2. 교통사고 사망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20 |
| 3. 교통사고 부상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22 |
| 제2절 충남 15개 시·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분석 ..... | 24 |
| 1. 교통사고 발생건수 .....                 | 24 |
| 2. 교통사고 사망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27 |
| 3. 교통사고 부상자수 .....                 | 29 |
| 제4장 시사점 및 방향성 .....                | 31 |

# 01 분석 개요

## 1. 배경 및 목적

- 지난 2019년 4월 일본 도쿄의 이케부쿠로(池袋)에서 87세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적신호임에도 멈추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30대 여성 모녀를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이는 일본 사회에 다시한번 고령운전자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나타내는 계기가 된 바 있음
  - 이미 일본은 2007년 초고령화 사회<sup>1)</sup>에 진입한 이후 저출산 인구고령화(少子高齢化)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
  - 심각한 인구고령화에 수반하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대책마련에 집중
- 우리나라도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개인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모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
-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, 상대적으로 시력과 청력, 그리고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능력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 접하게 됨
- 최근 각종 미디어와 기사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소식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느끼게 되지만, 실제 우리 주변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로 발생되고 있는지,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

---

1) 일반적으로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% 이상인 사회를 ‘고령화 사회’, 14% 이상인 사회를 ‘고령사회’, 20% 이상인 사회를 ‘초고령화 사회’라고 함

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

-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DB를 유형별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난·안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, 그 중 교통사고 분야의 일환으로 “고령운전자 교통사고”를 주제로 관련 DB를 수집, 분석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음
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에 대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, 분석결과는 향후 충남 및 각 시·군의 교통사고 분야 정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

## 2. 분석 방법

-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TAAS(교통사고분석시스템)<sup>2)</sup>에서 제공되는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음
  - 분석시점은 최근 14년간 자료로서 2005~2018년까지의 자료를 사용
  - 최근 14년간의 추이분석 중심으로 진행
- 자료분석은 충남의 일반 교통사고 실태분석, 충남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실태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,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음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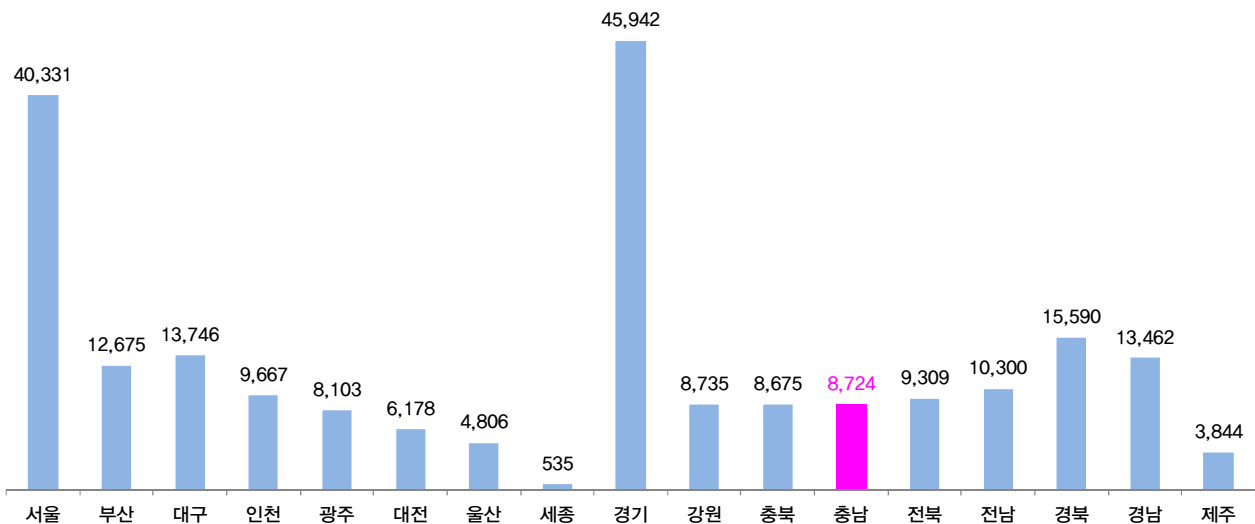
2) 도로교통공간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(TAAS)

## 02 충남 교통사고 실태 분석

### 제1절 충남 교통사고 분석

#### 1. 교통사고 발생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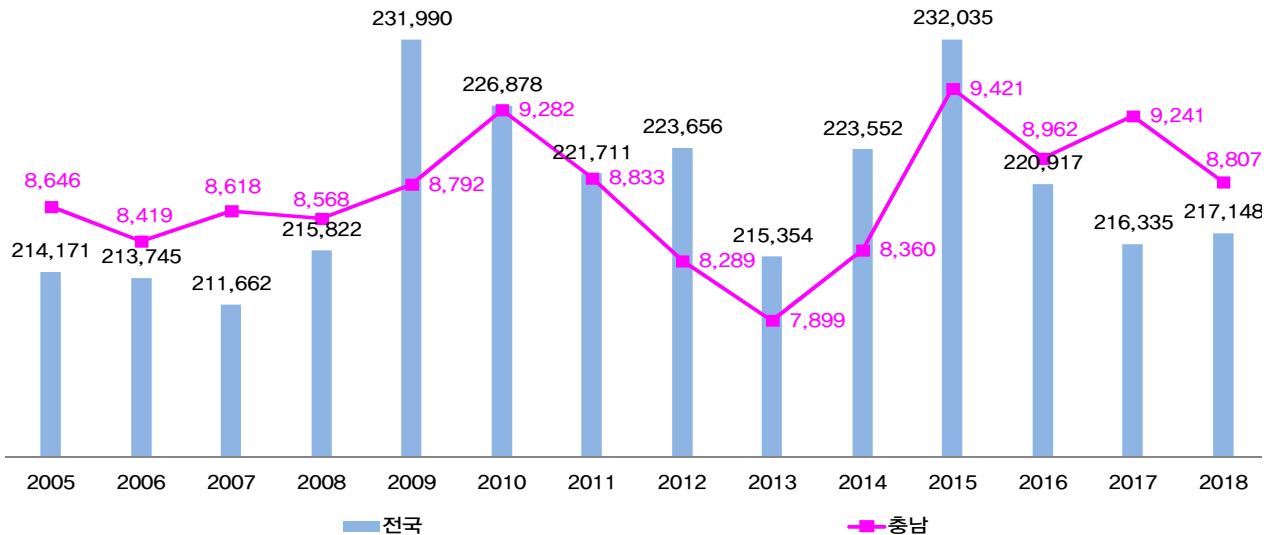
- 최근 14년간(2005~2018년)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, 우리나라는 최근 14년간 평균 220,3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
- 그 중 충남은 평균 8,7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발생건수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음



〈그림 2-1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(평균)(2005~2018)

○ 최근 14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, 충남은 201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 정점을 찍은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

- 2013년 7,899건으로 최소치를 기록한 이후, 2018년 8,807건으로 감소추세



〈그림 2-2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발생건수)(2005~2018)

○ 타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해본 결과, 충남은 연평균 425.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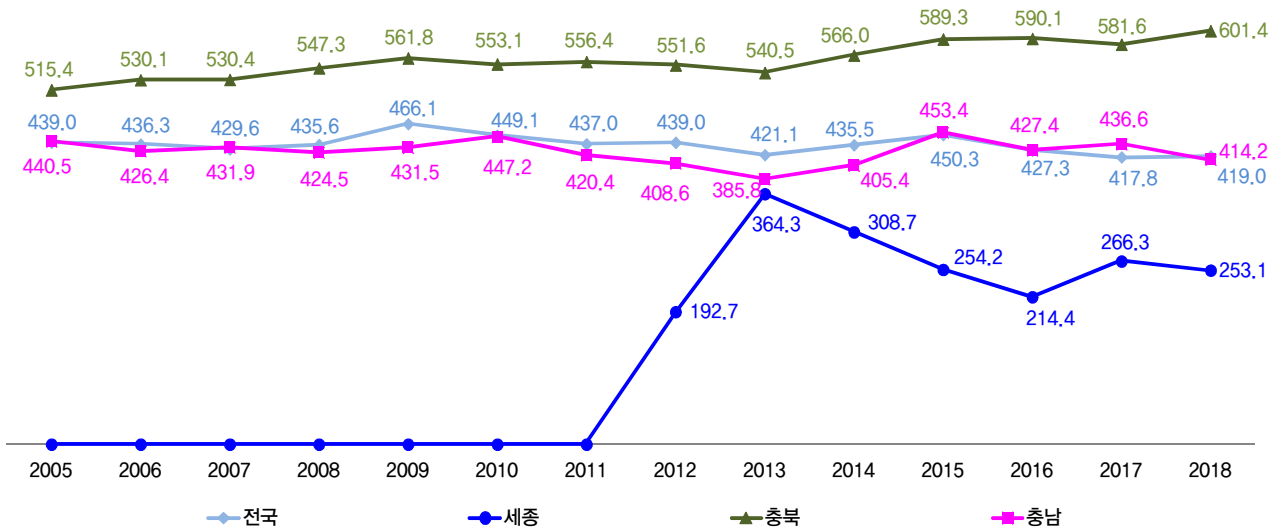
- 도 단위에서는 9개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2-3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(10만명당 발생건수 평균)(2005~2018)

○ 특히 충청권 지역내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보다는 높은 편이지만, 충북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수준임

- 충남은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수준(10만명당 발생건수 기준)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- 시계열적으로도 다소 감소, 증가가 반복되고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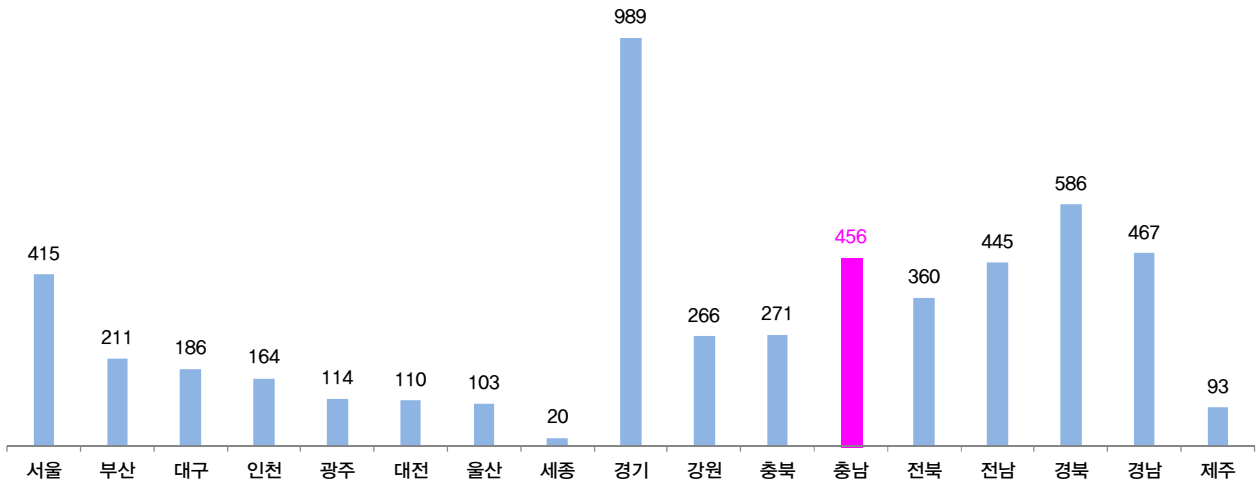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2-4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발생건수)(2005~2018)

## 2. 교통사고 사망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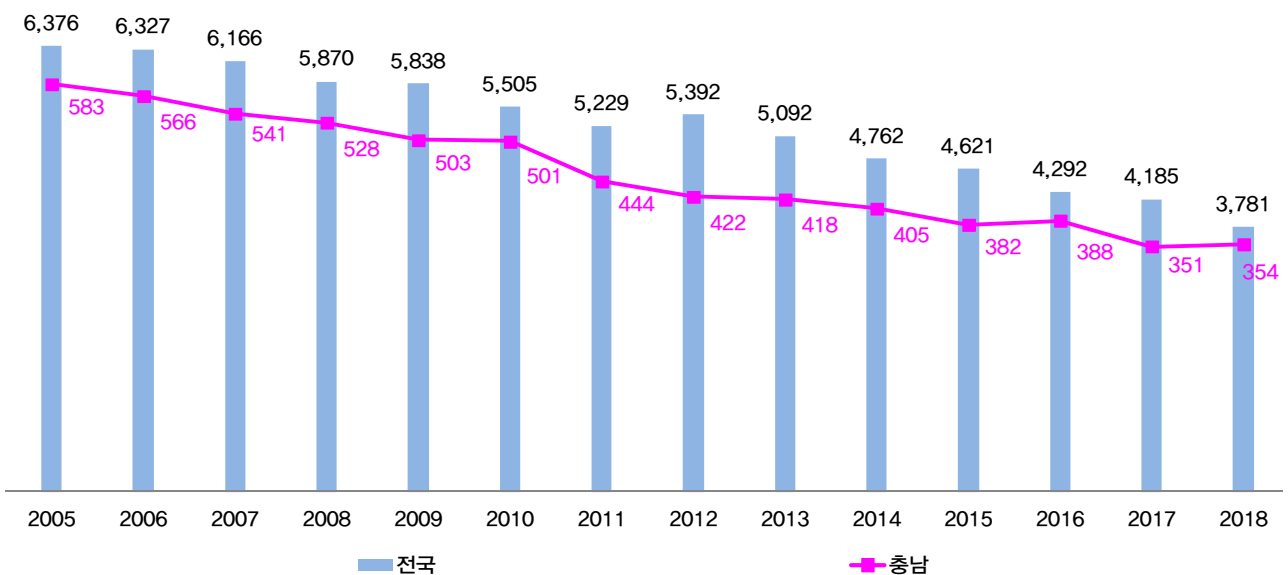
○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, 전국적으로 연간 5,24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

- 충남은 연간 4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는 전국에서 4위에 해당하는 수준임



〈그림 2-5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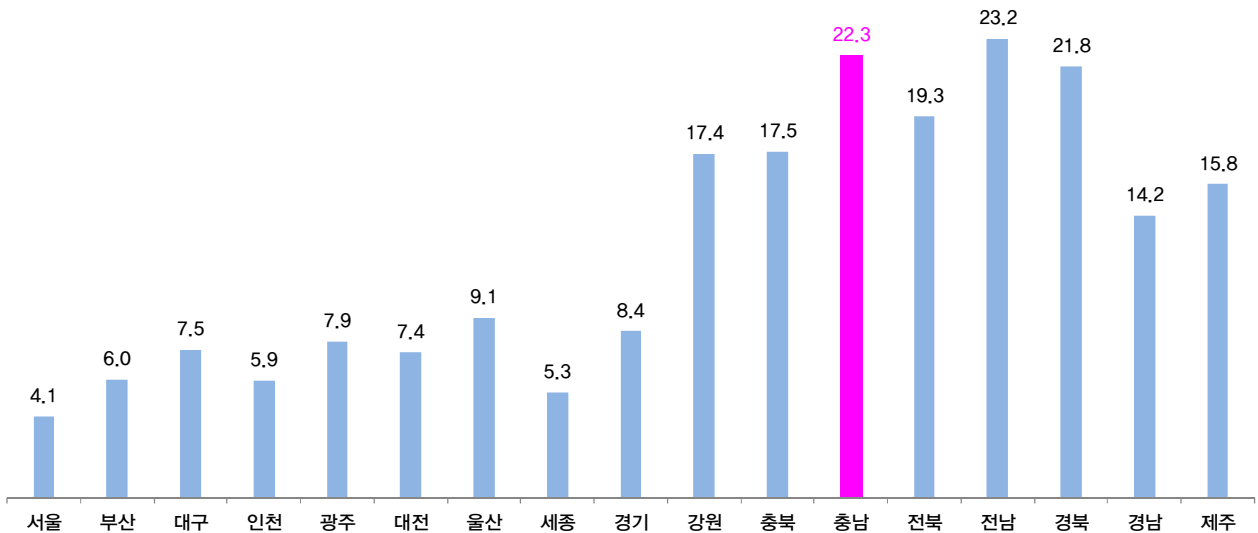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14년간 추이를 분석해보면,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, 충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


〈그림 2-6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사망자수)(2005~2018)

○ 타 광역자치체와의 비교를 해보면, 충남의 수준은 전국에서 2위에 해당하는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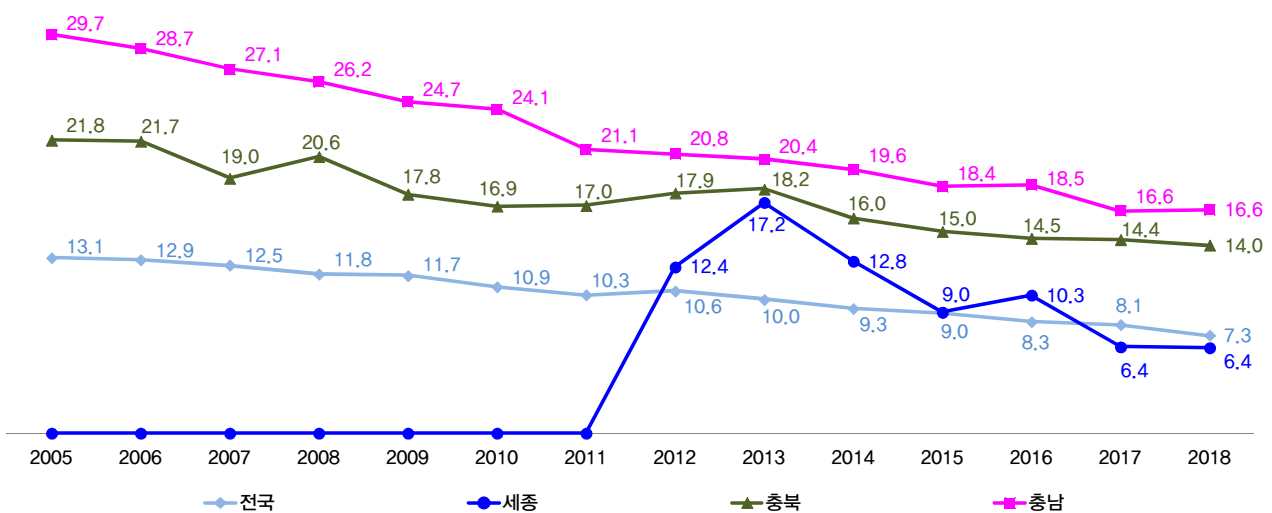
-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충남은 연간 22.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되며, 충남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



〈그림 2-7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(10만명당 사망자수 평균)(2005~2018)

○ 충청권내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,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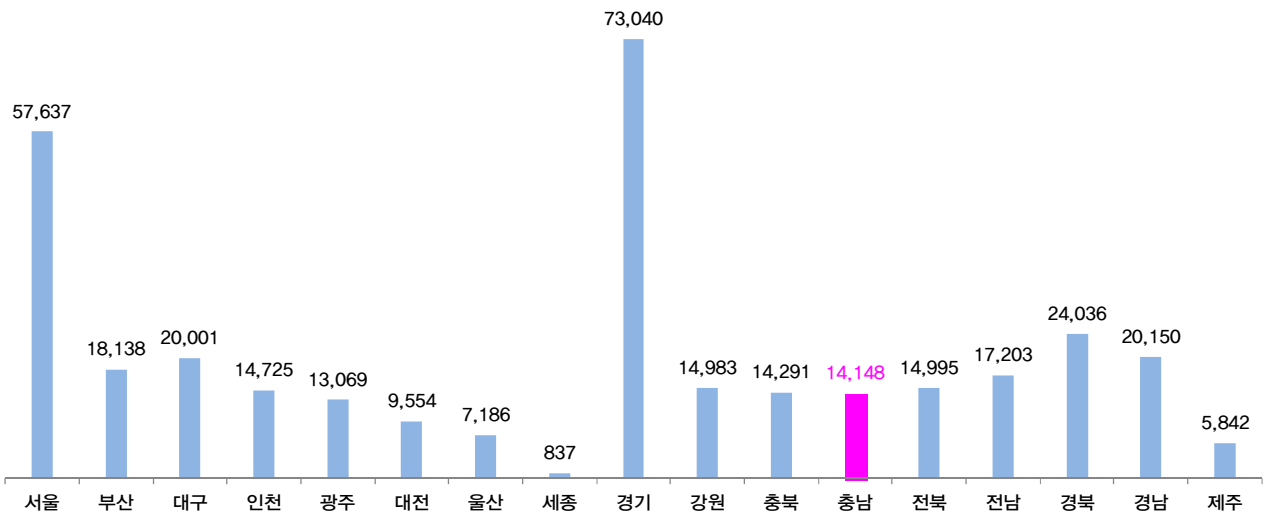
- 다만, 10만명당 사망자수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

〈그림 2-8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사망자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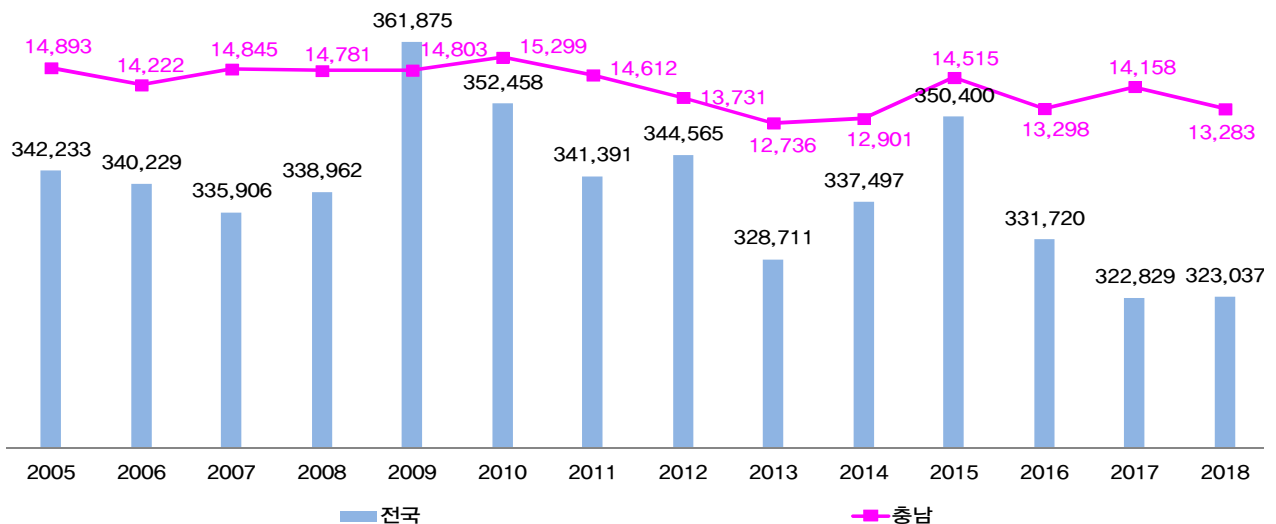
### 3. 교통사고 부상자수

- 최근 14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의 경우, 전국적으로 연간 339,4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
- 충남은 연평균 14,148명의 교통사고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전국에서 12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임



〈그림 2-9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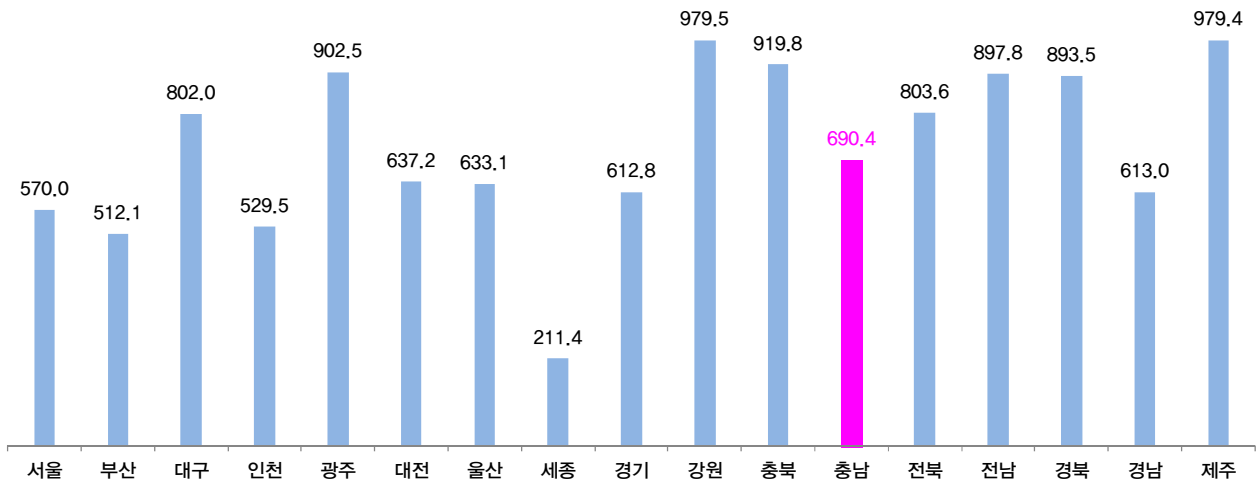
-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는 2009년과 2015년 상승기를 맞이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충남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



〈그림 2-10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부상자수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당 부상자수로 살펴보면, 충남은 연간 690.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9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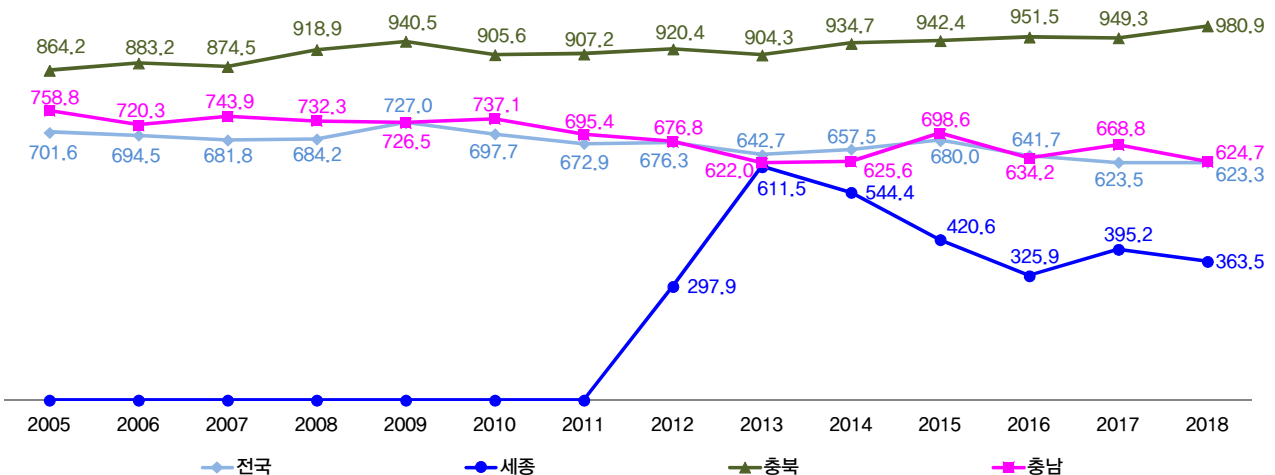
- 특히 도 단위의 지자체 중에서는 9개 중 7위에 해당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



〈그림 2-11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수(10만명당 부상자수 평균)(2005~2018)

○ 충청권내 지역과 비교해보면, 전국적으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충남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

- 충청권 지역에서는 충북이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 및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에 반해 충남 및 세종은 감소추세를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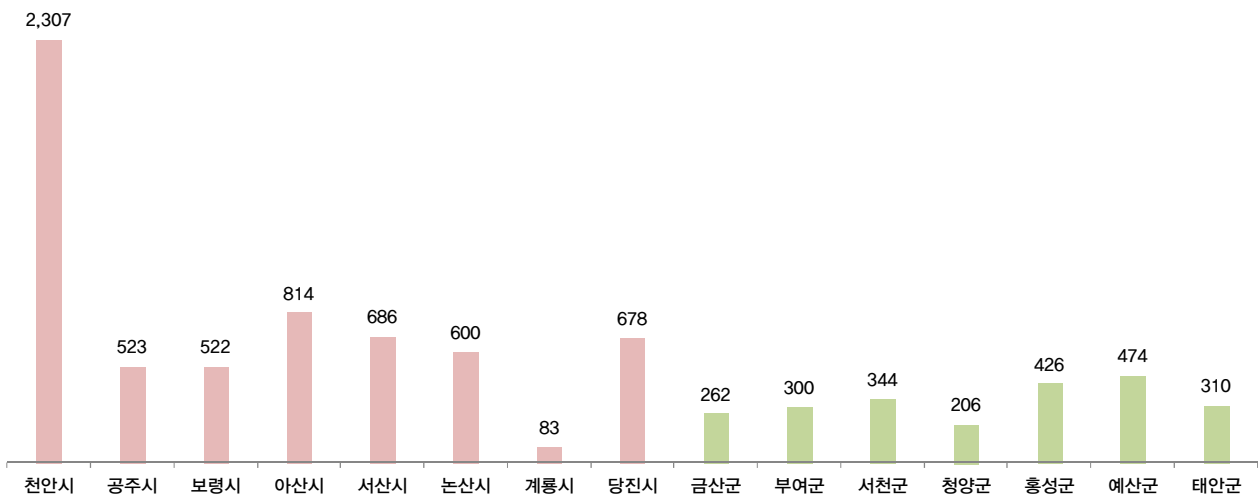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2-12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부상자수)(2005~2018)

## 제2절 충남 15개 시·군 교통사고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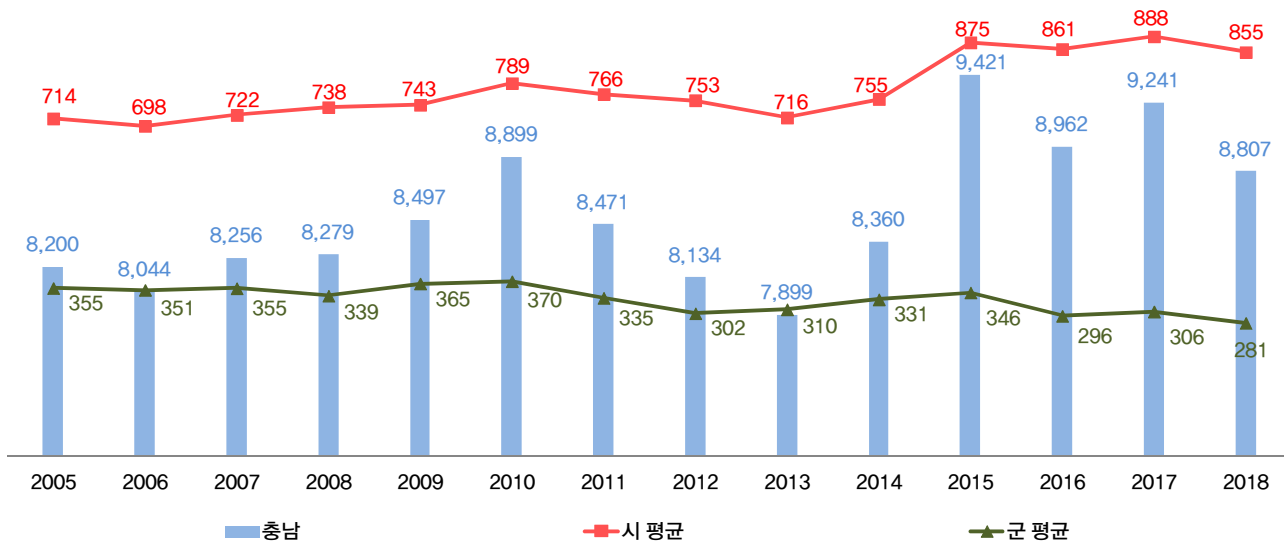
### 1. 교통사고 발생건수

- 도내 15개 시·군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, 먼저 발생건수 기준으로는 천안시가 연간 2,30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
  - 8개 시 중에서는 천안시 다음으로 아산시가 연간 814건으로 높았으며, 서산시(연간 686건), 당진시(연간 678건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7개 군 지역 중에서는 예산군이 연간 4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
  - 예산군에 이어 홍성군이 연간 426명으로 높았으며, 서천군(연간 344건), 태안군(연간 310건)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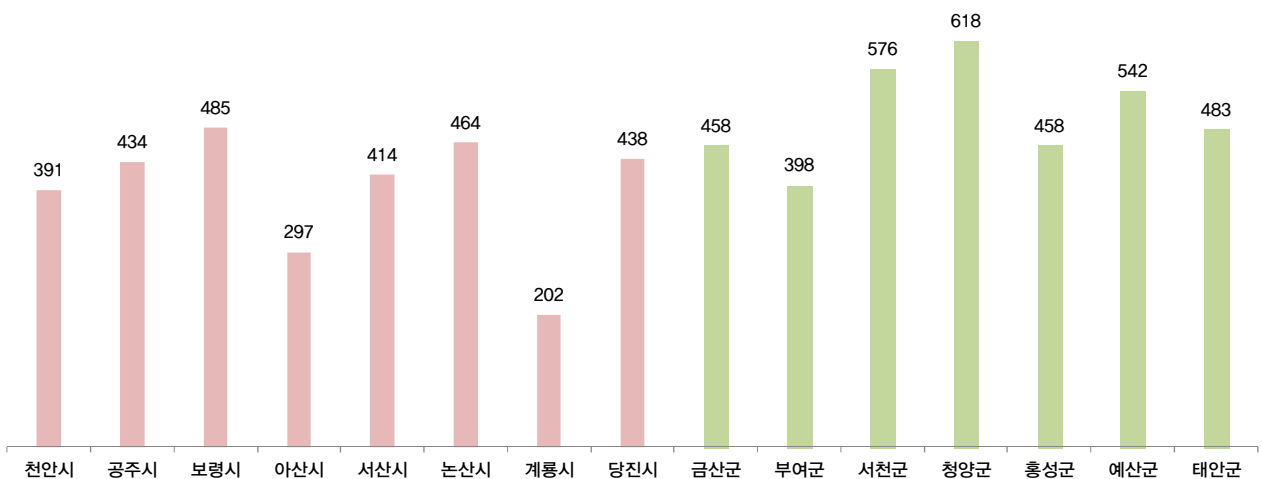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-13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(평균)(2005~2018)

- 발생건수 기준으로 최근 14년간 교통사고는, 8개 시에서 연간 평균 777건이 발생하였으며, 7개 군에서 연간 평균 332건이 발생하여 시 지역에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였음
- 시 지역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, 군 지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



〈그림 2-14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발생건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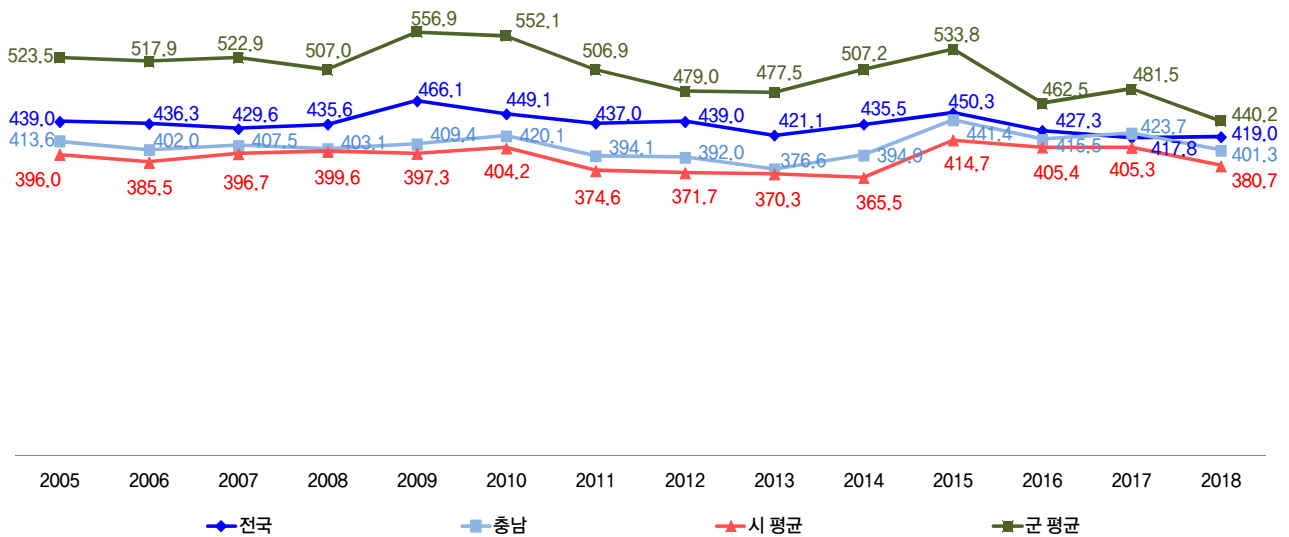
-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비교해보면, 도내에서는 청양군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청양군이 연간 618건으로 가장 높았고, 서천군이 576건, 예산군이 542건이었으며, 인구기준으로 볼 때 군 지역의 교통사고가 시 지역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



〈그림 2-15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(10만명당 발생건수 평균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볼 때, 충남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군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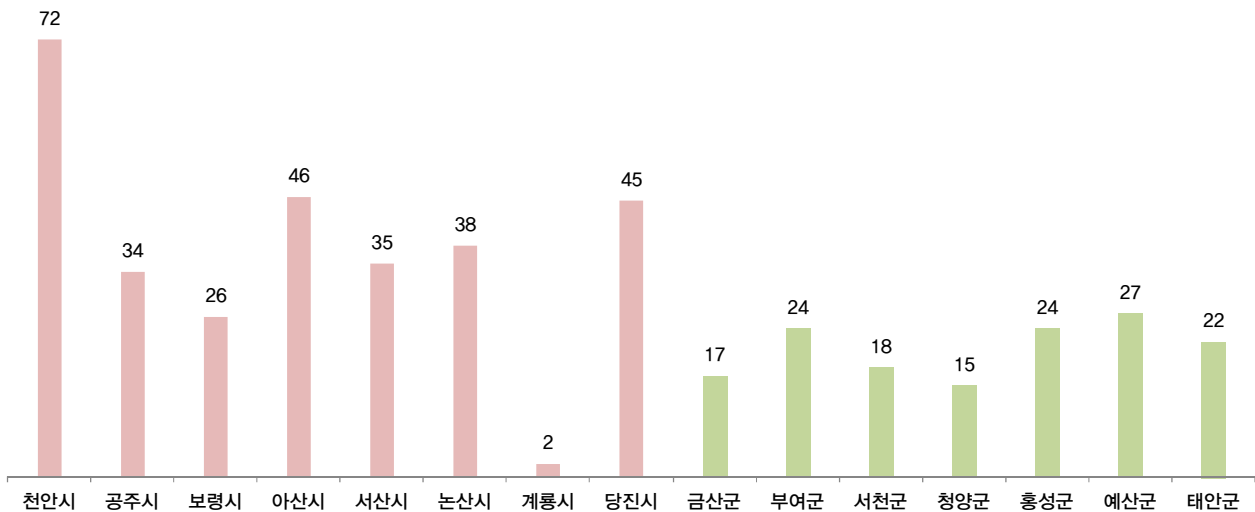
- 이에 반해 시 지역은 충남 평균 및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



〈그림 2-16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발생건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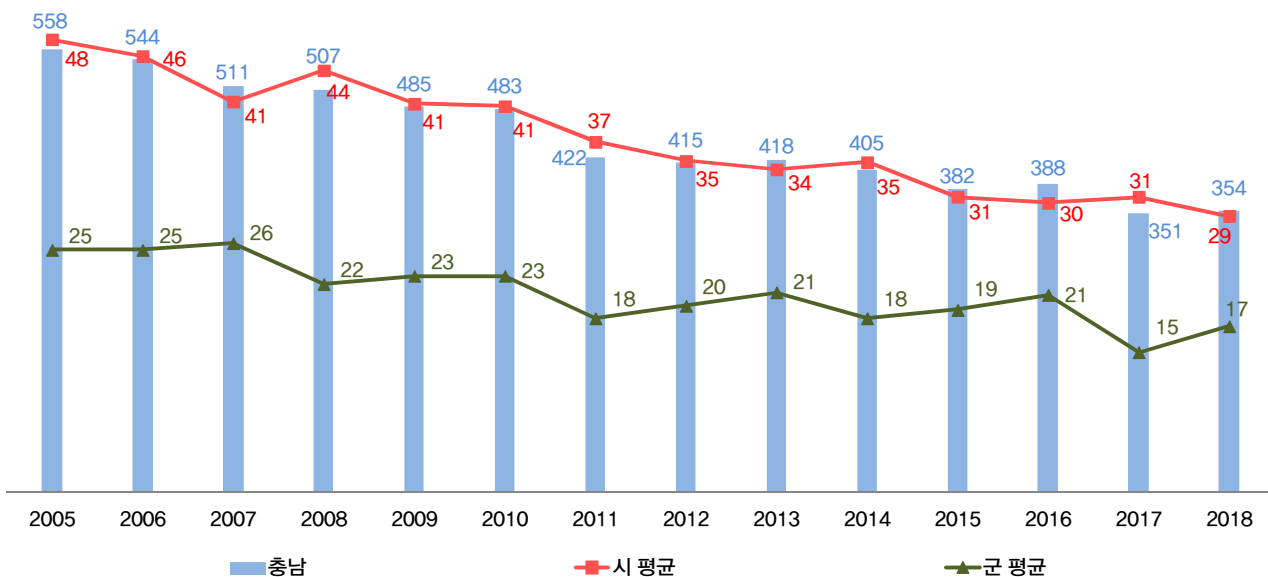
## 2. 교통사고 사망자수

- 최근 14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시·군별로 살펴보면, 천안시가 연간 7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, 아산시(46명), 당진시(45명)의 순으로 나타났음
- 군 지역에서는 예산군이 연간 2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, 부여군·홍성군(24명)의 순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2-17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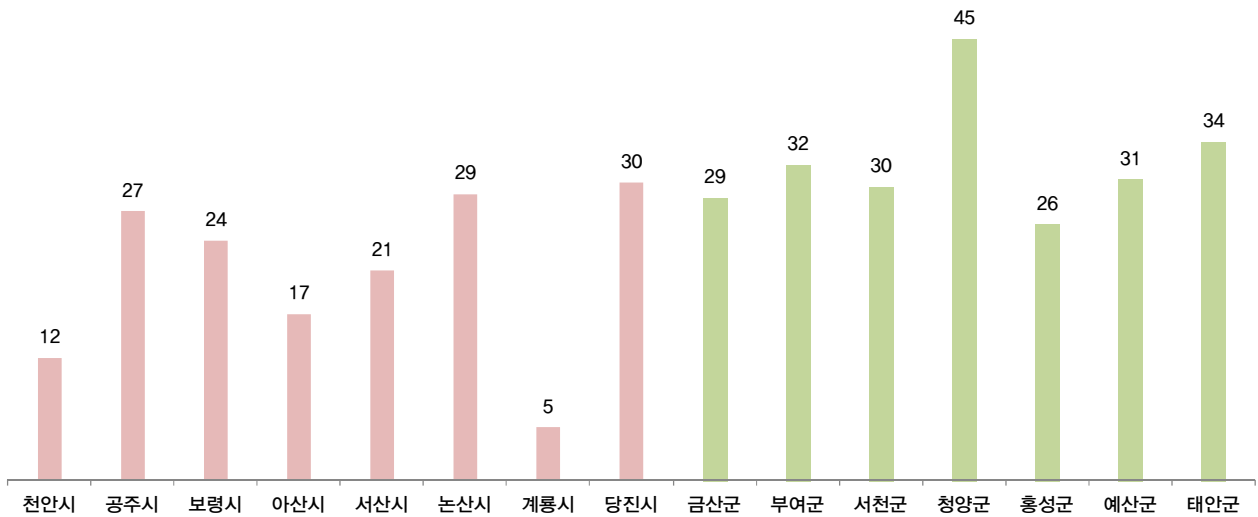
-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를 살펴보면, 시 지역 평균이 군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,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2-18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사망자수)(2005~2018)

○ 시·군별 비교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, 도내에서는 청양군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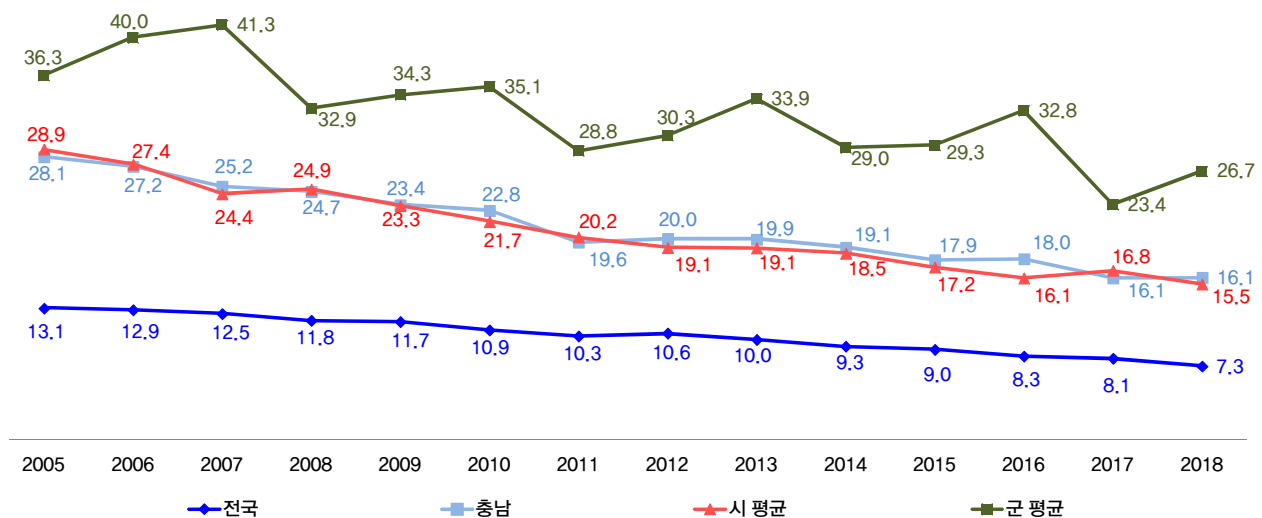
- 청양군이 인구 10만명당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, 그 뒤를 이어 태안군(34명), 부여군(32명) 및 예산군(31명)의 순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2-19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(10만명당 사망자수 평균)(2005~2018)

○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를 살펴보면,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군 지역의 경우에는 다소간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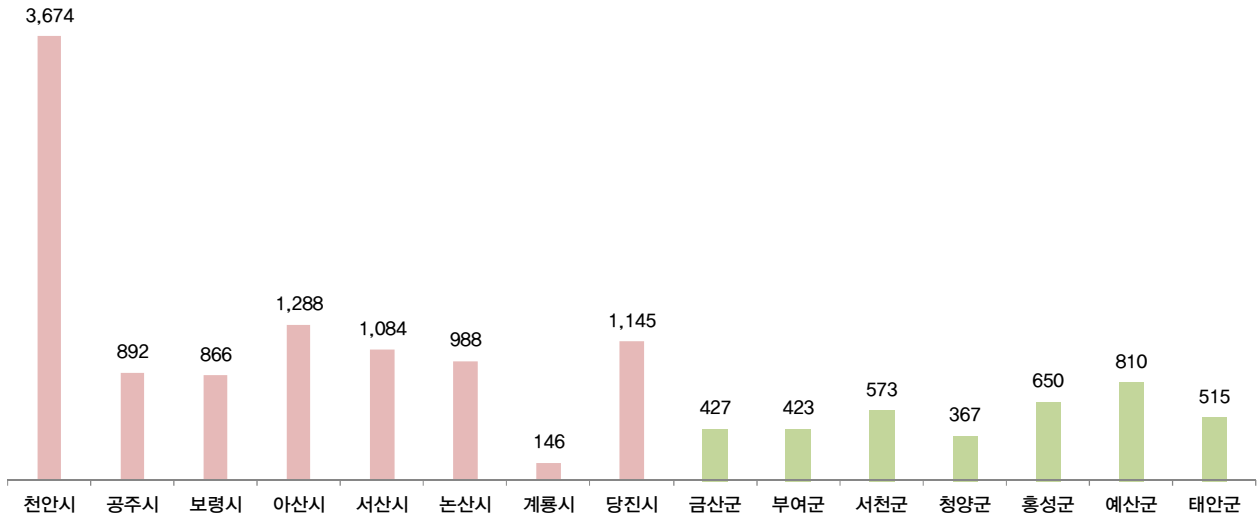
- 충남 도내 모든 수치(도 및 시·군 평균)가 전국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, 시 평균과 충남 도평균이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



〈그림 2-20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사망자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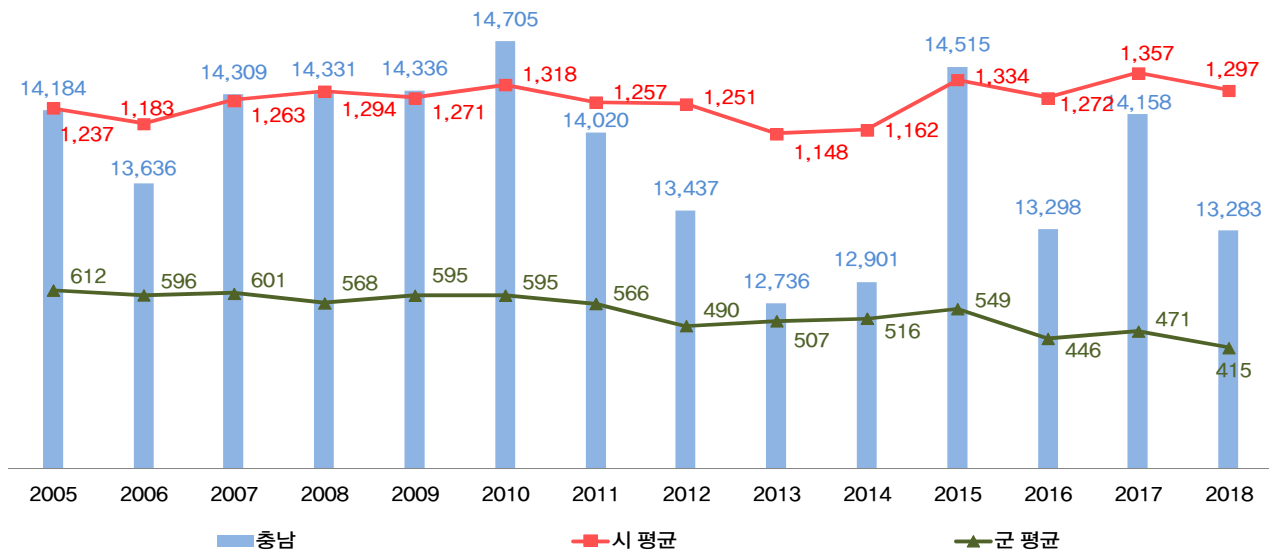
### 3. 교통사고 부상자수

- 최근 14년간 부상자수를 살펴보면, 도내에서는 천안시가 연간 평균 3,674명의 교통사고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아산시(1,288명), 당진시(1,145명)의 순으로 발생
- 군 지역에서는 예산군이 연간 평균 8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2-21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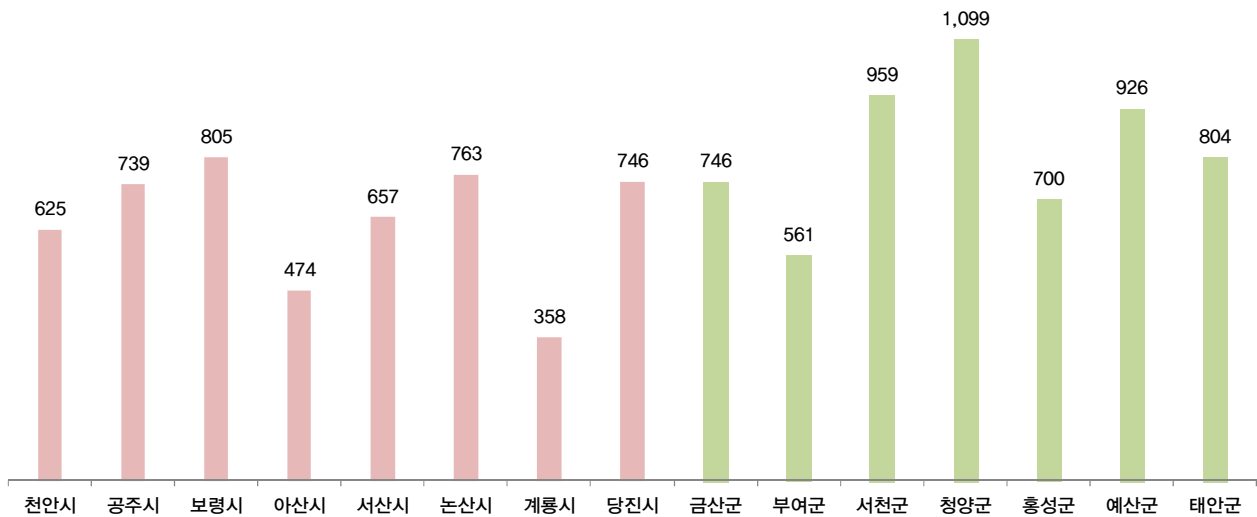
- 최근 1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, 충남 전체적으로는 2010년과 2015년, 2017년 등 몇차례의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으나, 군 평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2-22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부상자수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부상자수로 비교해보면, 도내에서는 사망자수와 마찬가지로 청양군이 1,09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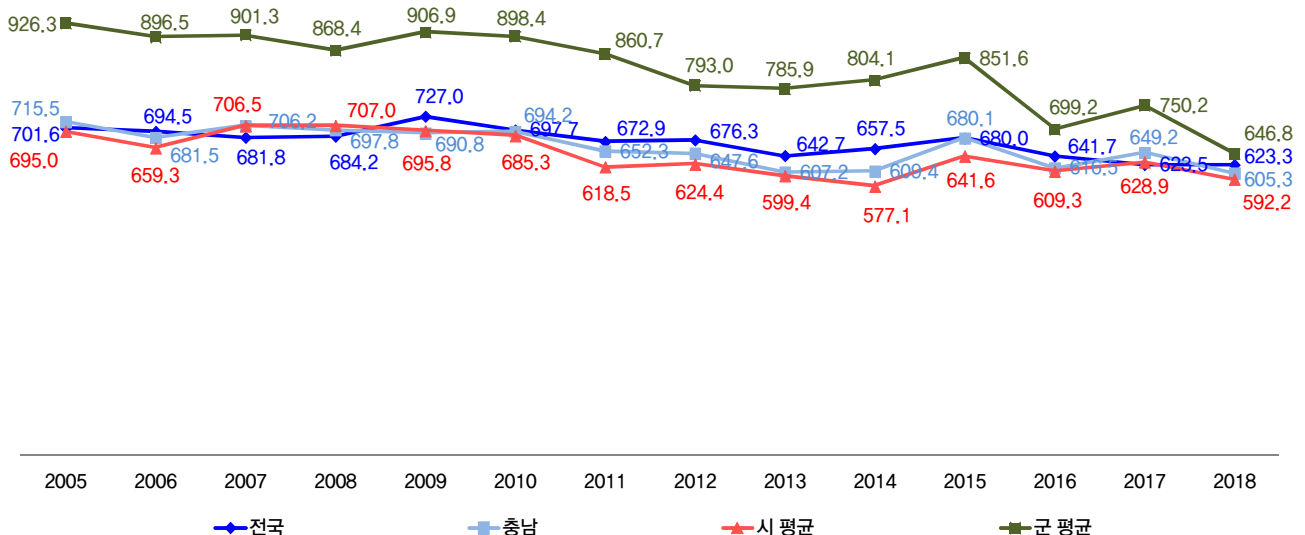
- 청양군에 이어 서천군(959명)과 예산군(926명)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, 시 지역에서는 보령시가 80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2-23〉 최근 14년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수(10만명당 부상자수 평균)(2005~2018)

○ 최근 1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, 도내 평균과 시 지역의 평균이 전국에 비해 다소나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, 군 지역은 전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

- 다만,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시 및 군 평균값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



〈그림 2-24〉 최근 14년간 충남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부상자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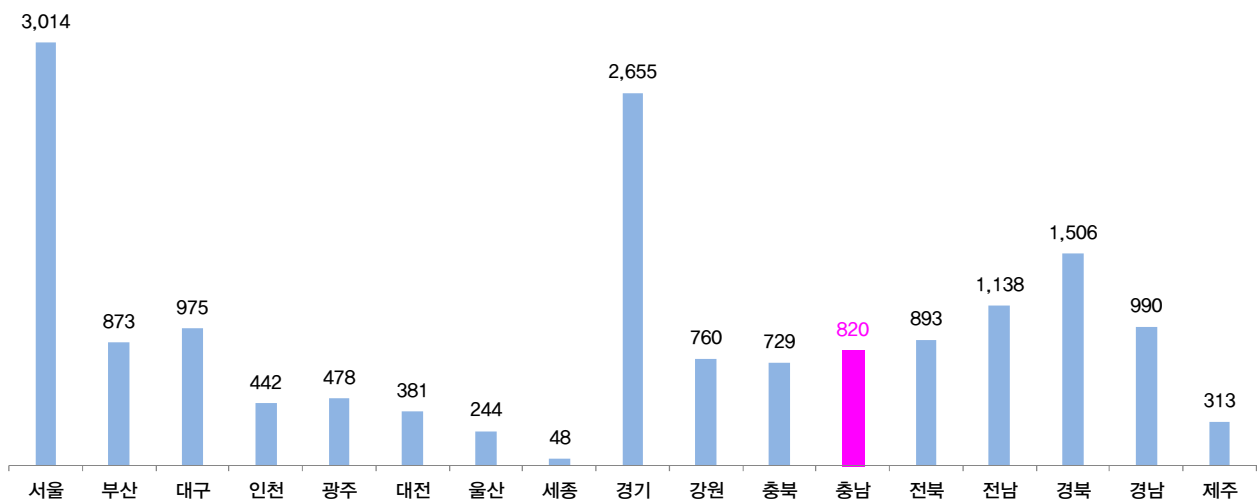
## 03

#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분석

## 제1절 충남 고령운전자<sup>3)</sup> 교통사고 분석

### 1. 교통사고 발생건수

-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, 최근 14년간(2005~2018년) 연평균 16,2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
- 그 중 충남은 연간 820건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발생건수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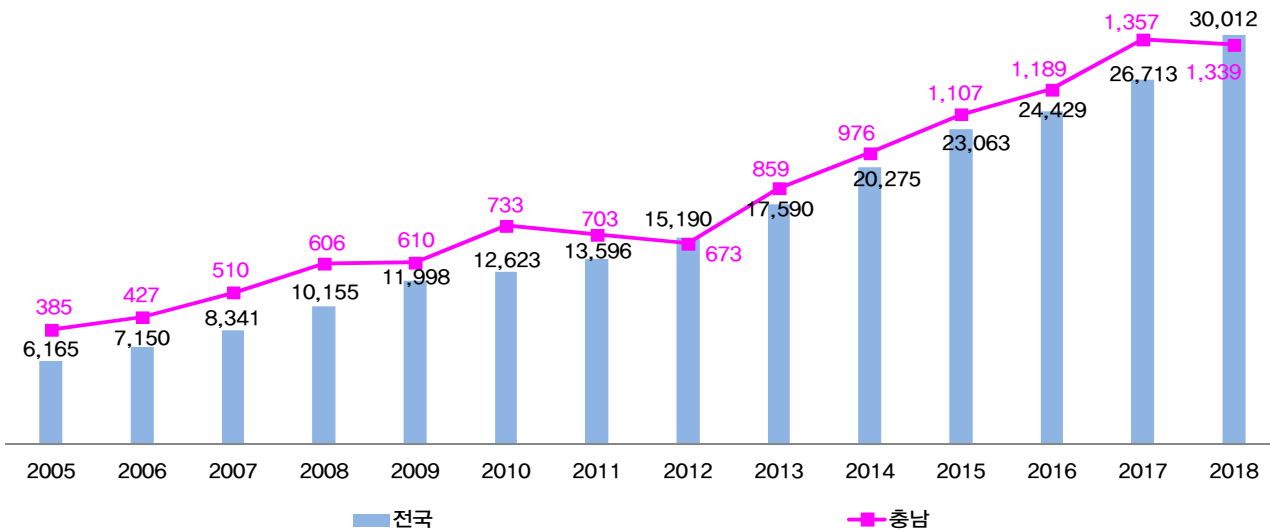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3-1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(평균)(2005~2018)

3) 운전 제1당사자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운전자인 경우를 의미함(도로교통공단)

○ 최근 14년간 발생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, 전국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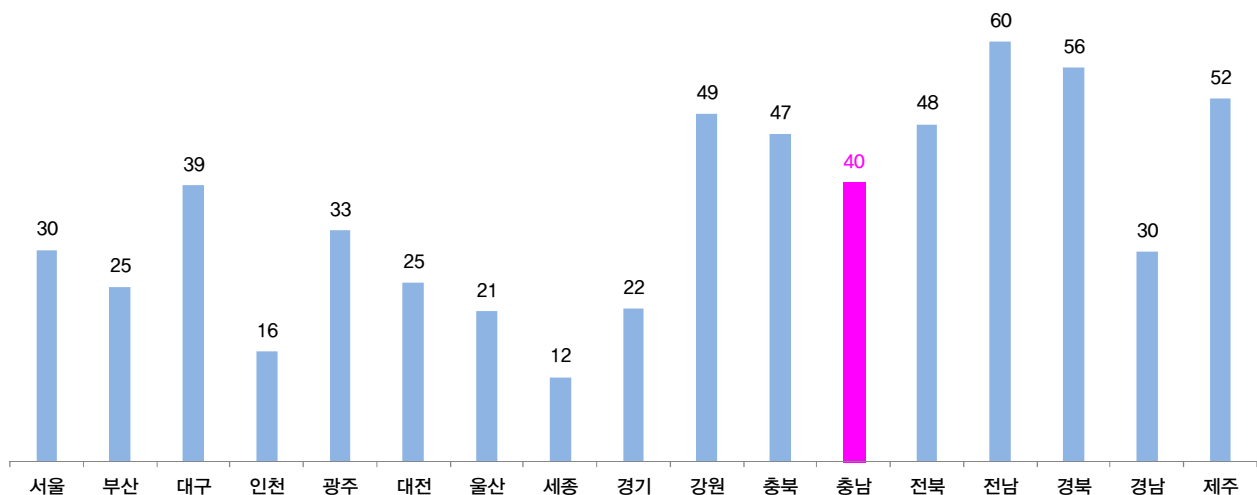
- 충남은 2011~2012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,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

〈그림 3-2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발생건수)(2005~2018)

○ 타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를 위해 인구 10만명당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해보면, 충남은 4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7번째에 해당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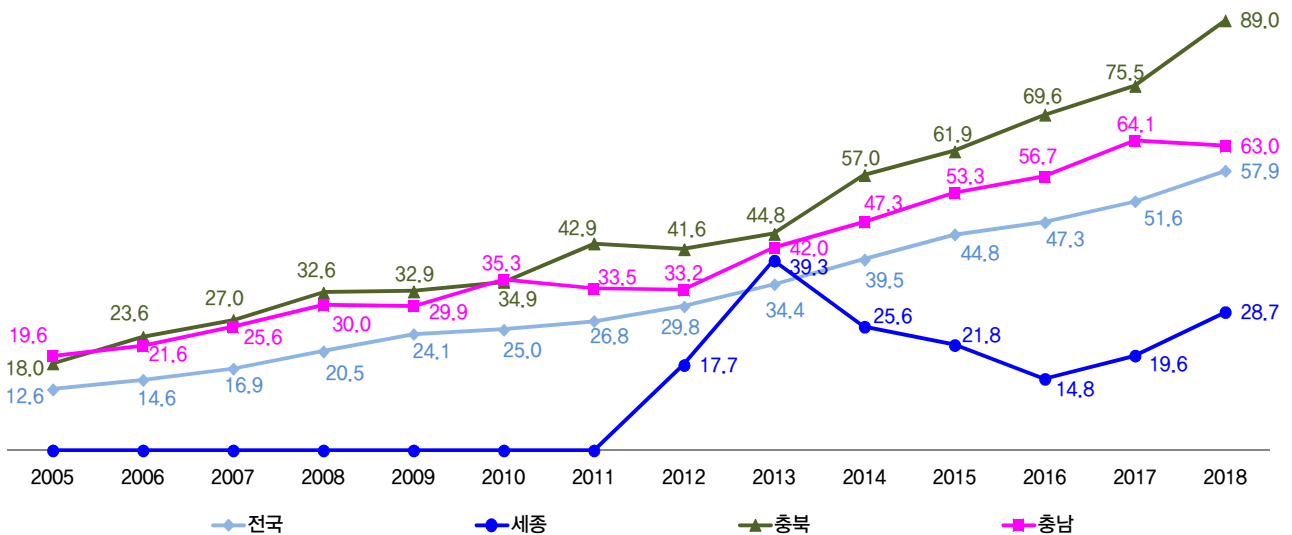
- 전국 평균(연간 32건)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, 9개 도 단위의 지자체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치로서 꽤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



〈그림 3-3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(10만명당 발생건수 평균)(2005~2018)

○ 충청권내 지역과의 비교를 해보면, 충남은 충북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나, 전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비해서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

-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충남과 충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다만 2018년에 충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반면 충북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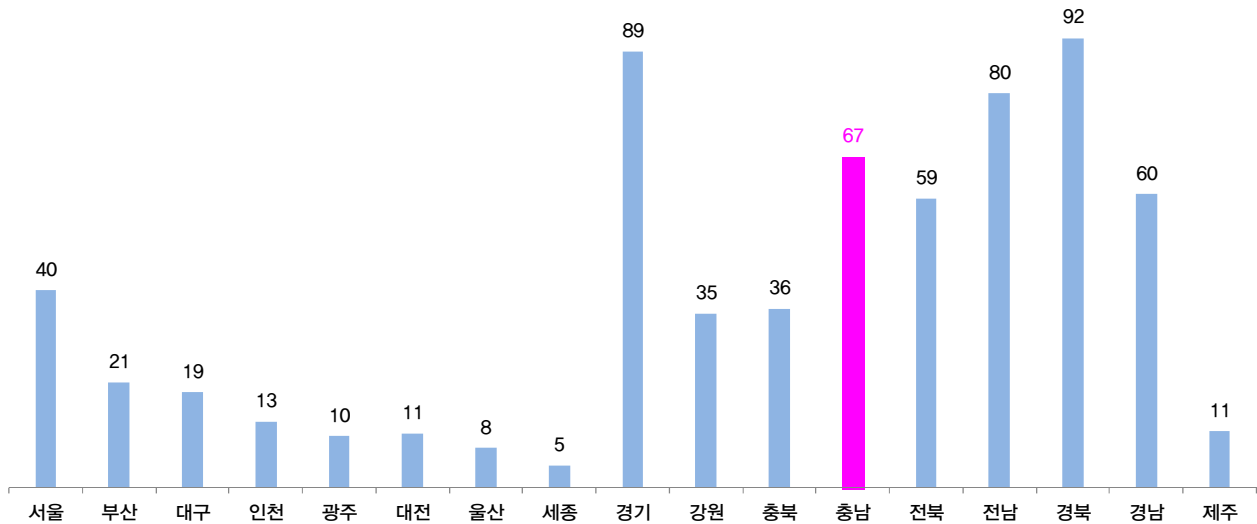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3-4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발생건수)(2005~2018)

## 2. 교통사고 사망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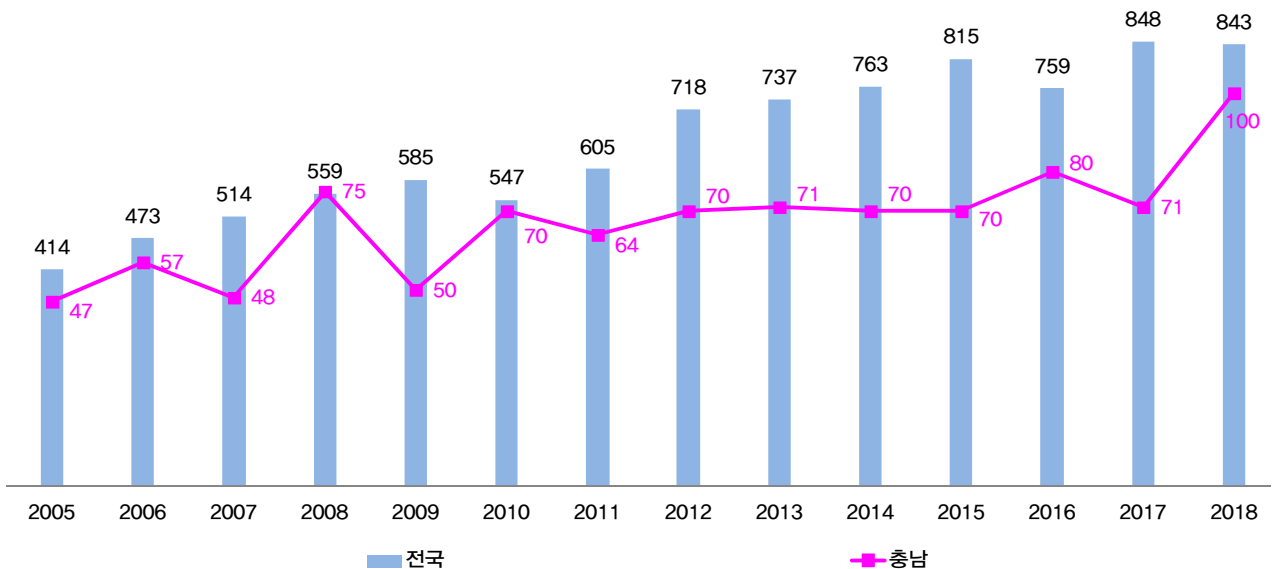
○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,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656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

- 충남은 연간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, 이는 전국적으로 4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임



〈그림 3-5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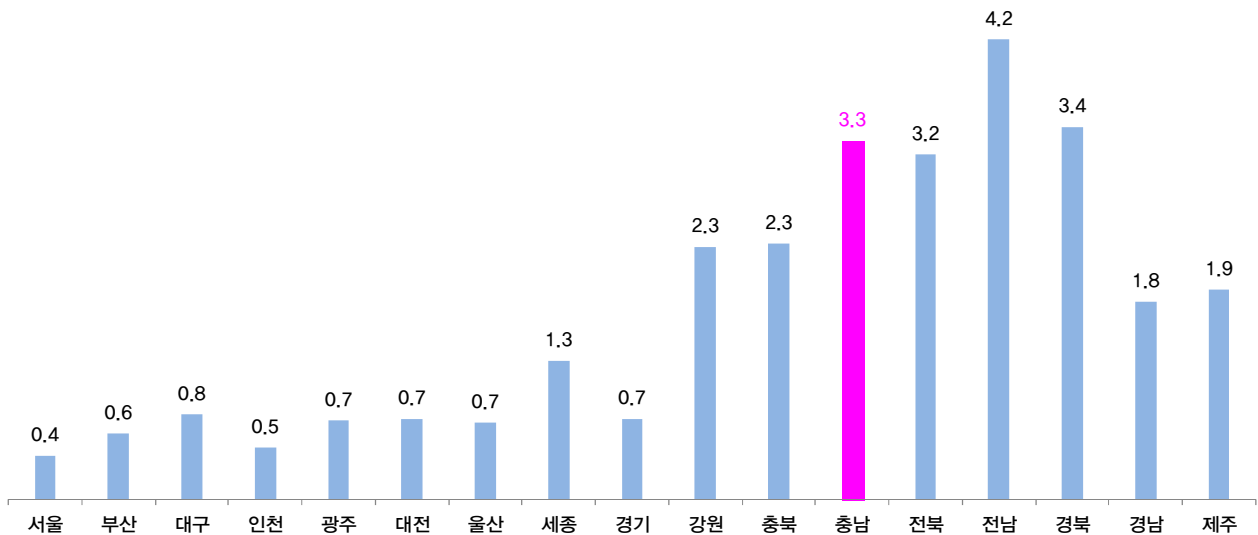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14년간 추이를 분석해보면, 전국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, 충남의 경우에는 다소간의 증감이 있으나, 2018년에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음



〈그림 3-6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사망자수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분석해보면, 전국적으로 1.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충남은 3.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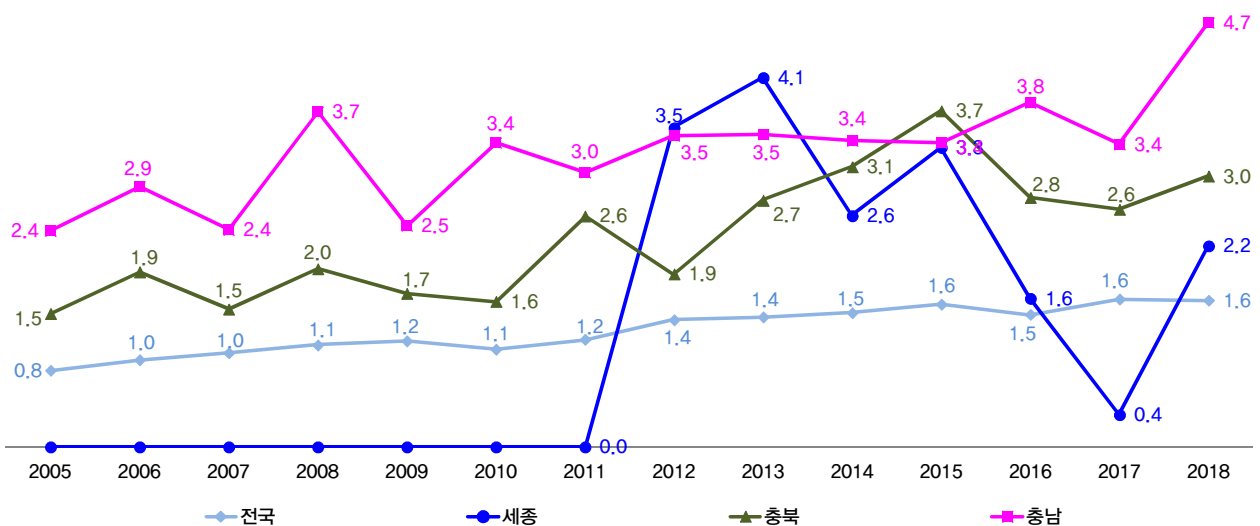
- 전국적으로 충남은 3번째로 많은 사망자수를 나타내고 있음



〈그림 3-7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(10만명당 사망자수 평균)(2005~2018)

○ 충청권내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, 전반적으로 충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10만명당 사망자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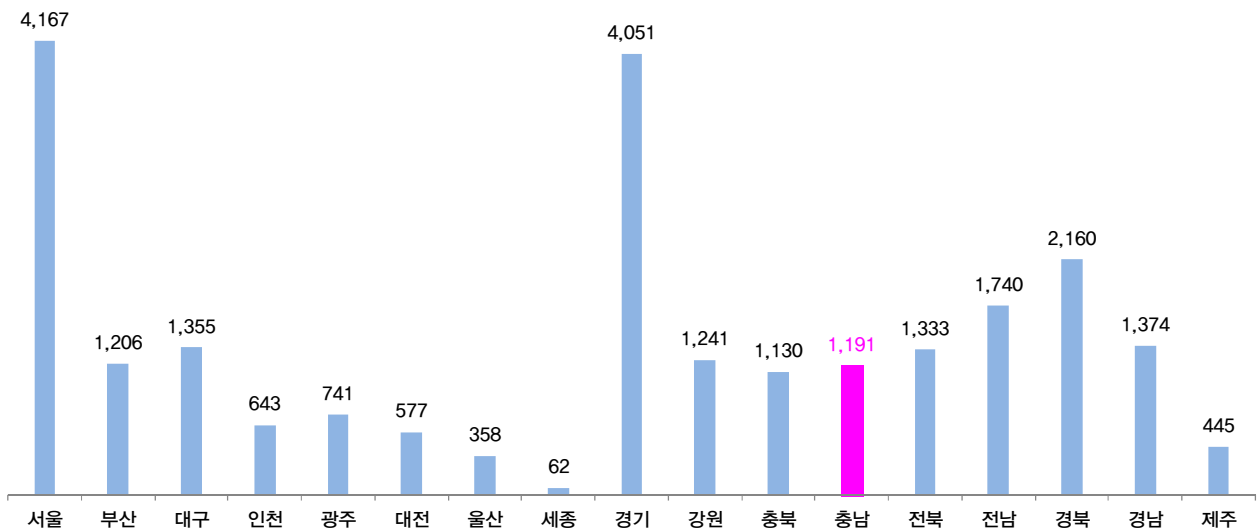
- 2012~2013년, 2015년을 제외하면 충남의 사망률은 충청권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2018년에 재차 급증하였음



〈그림 3-8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사망자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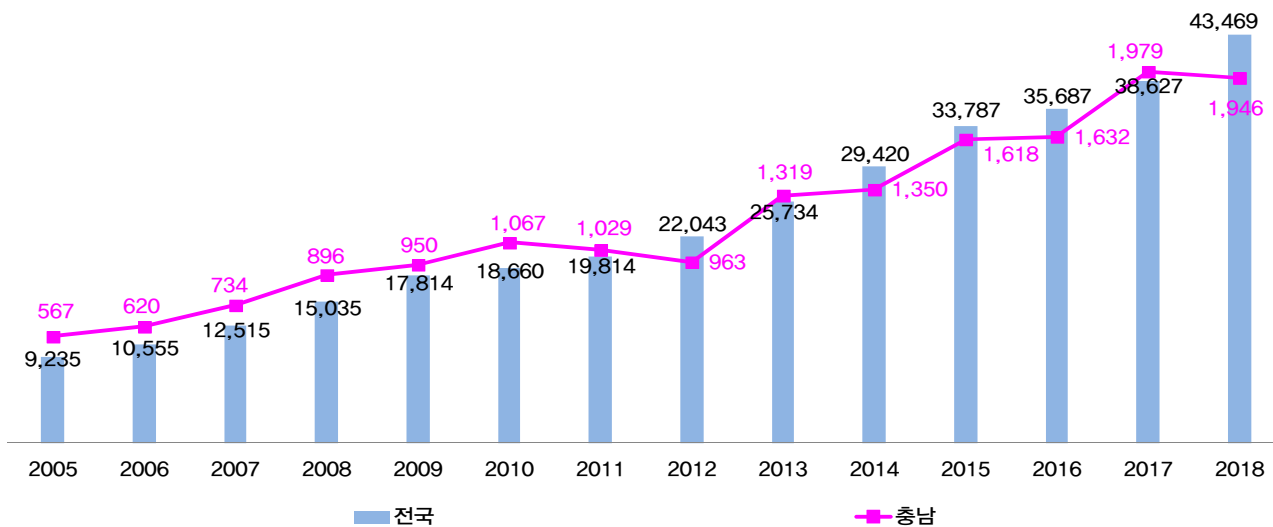
### 3. 교통사고 부상자수

- 최근 14년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부상자수의 경우, 전국적으로 연간 23,74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
  - 충남은 연간 1,1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전국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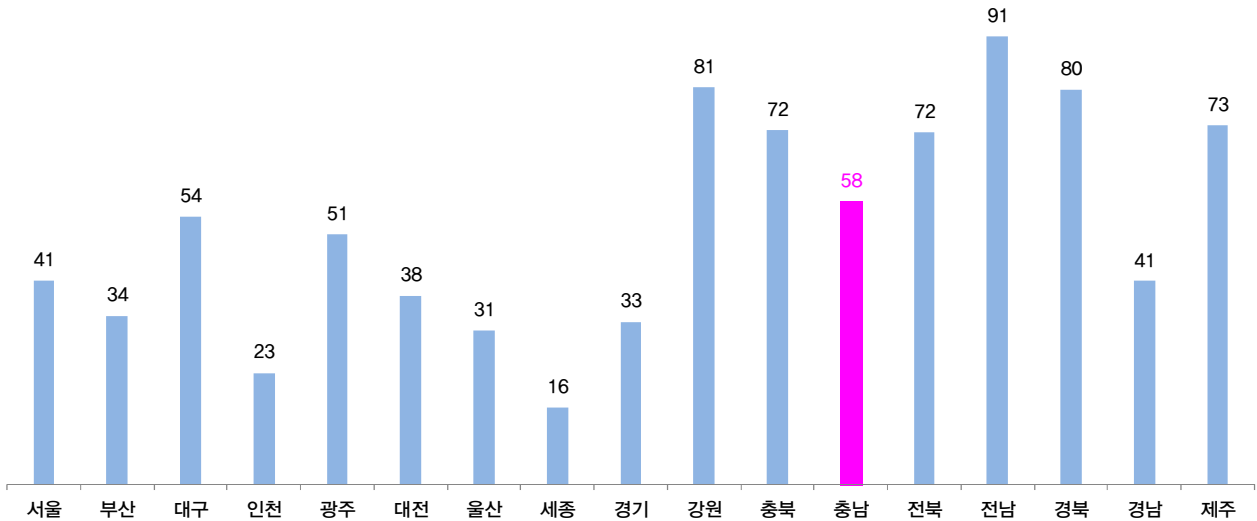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-9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수(평균)(2005~2018)

-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, 충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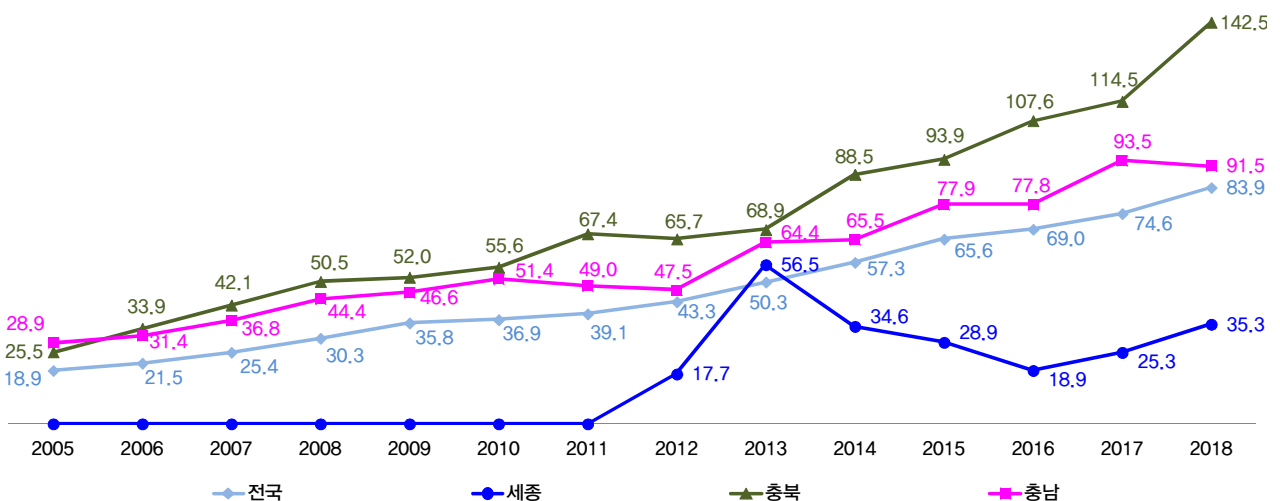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-10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부상자수)(2005~2018)

- 인구 10만명당 부상자수를 살펴보면, 전국적으로 연간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반면 충남은 5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전국적으로는 7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며, 도 단위에서는 9개 중 7번째에 해당함



〈그림 3-11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수(10만명당 부상자수 평균)(2005~2018)

- 충청권내 지역과 비교해보면, 전국의 증가 추세선에 비해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매년 전국 평균 이상의 부상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2018년에는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, 충남은 일시적이지만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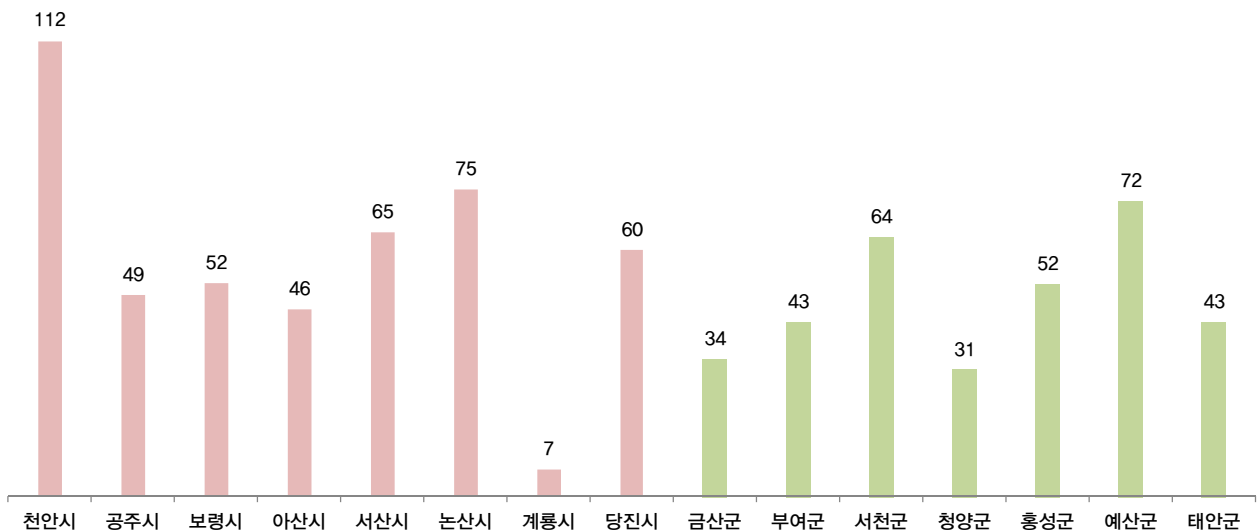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3-12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부상자수)(2005~2018)

## 제2절 충남 15개 시·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분석

### 1. 교통사고 발생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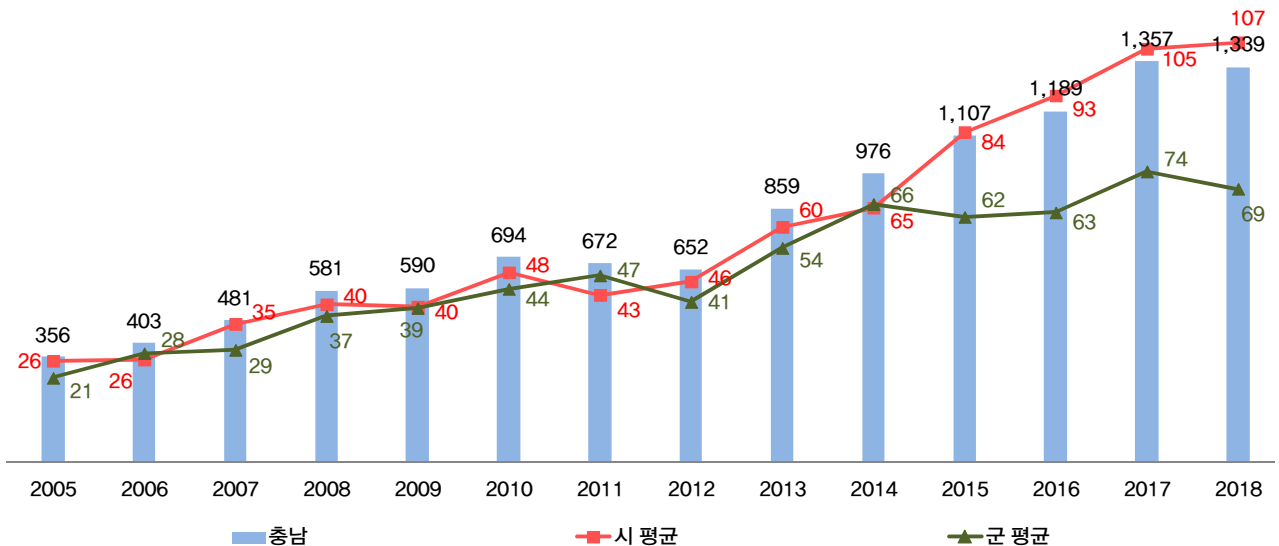
- 도내 15개 시·군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, 도내에서는 천안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
  - 천안시에서는 연간 112건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그 뒤를 이어 논산시(75건)와 예산군(72건)에서 많이 발생하였음
- 특히 7개 군 중에서는 예산군에 이어 서천군에서 연간 64건으로 많이 발생하였음
  - 예산군 및 서천군에 이어 홍성군(52건)과 부여군·태안군(43건)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음



〈그림 3-13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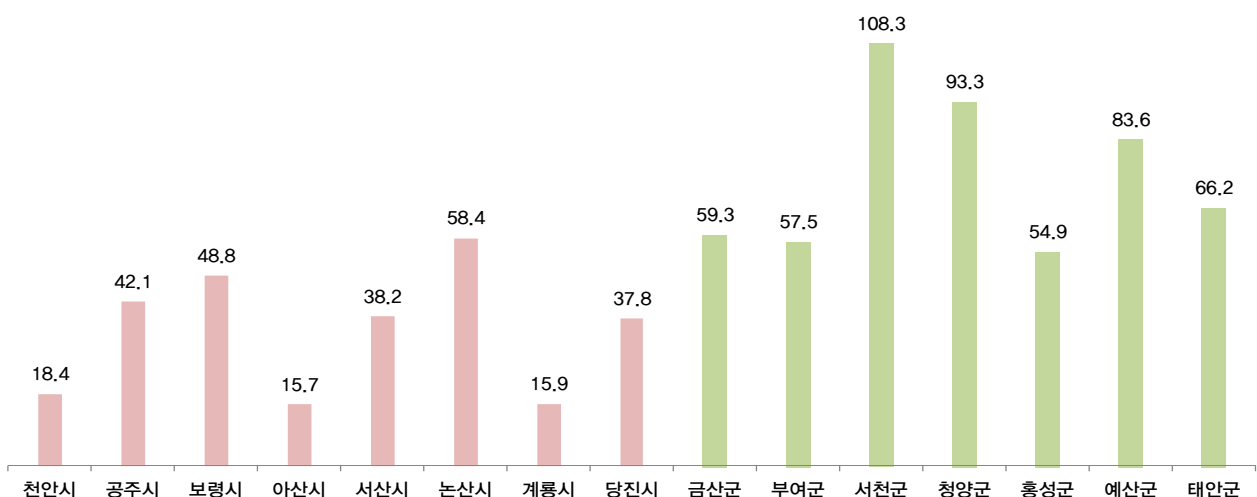
○ 발생건수 기준으로 최근 14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며, 시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, 군 지역은 2014년 이후 완만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

- 시 지역에서는 2005년 26건에서 2018년 10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, 군 지역은 2005년 21건에서 2014년 이후 60~70건을 유지하고 있음



〈그림 3-14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발생건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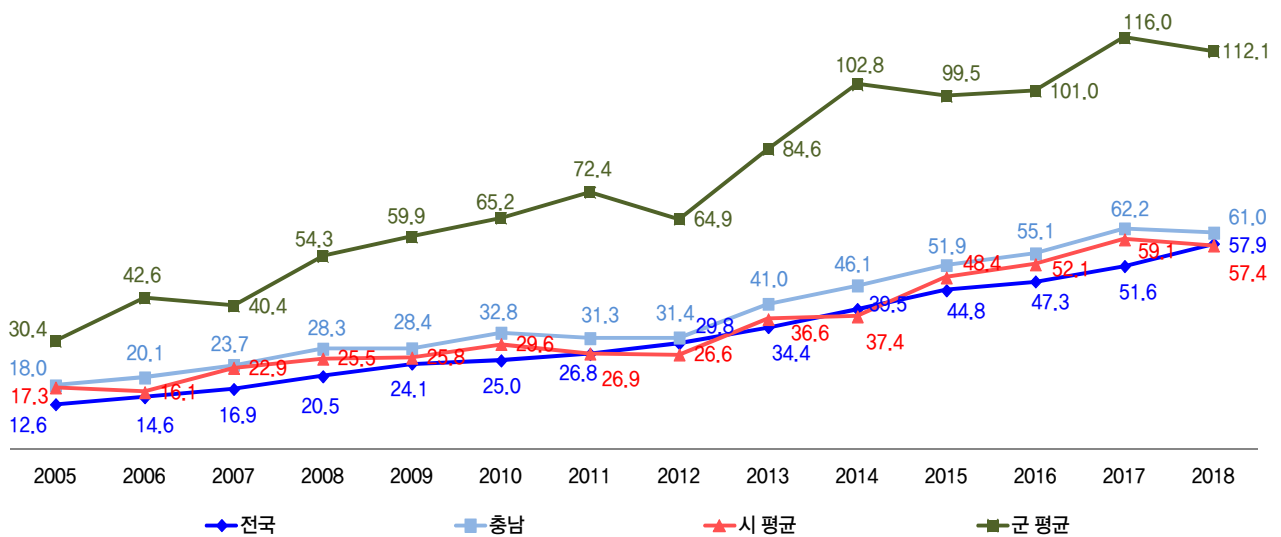
○ 인구 10만명당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보면, 서천군이 108.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청양군, 예산군 등 군 지역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다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

〈그림 3-15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(10만명당 발생건수 평균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당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특히 군 지역에서의 추세선이 전국 및 충남보다 훨씬 위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

- 특히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57.9건, 충남 평균이 61.0건인데 비해 충남의 군 지역 평균은 112.1건으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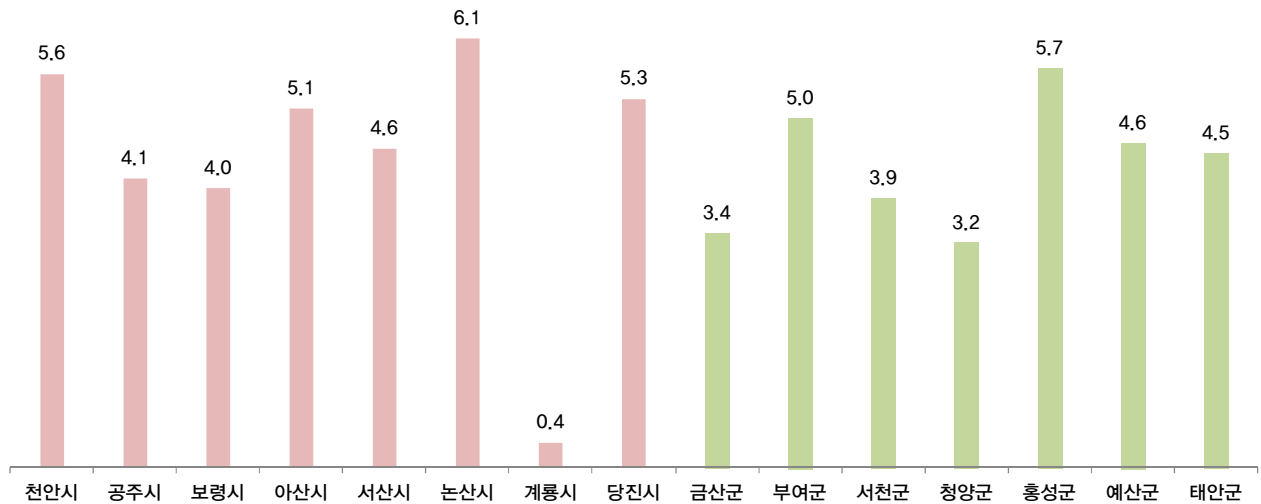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3-16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발생건수)(2005~2018)

## 2. 교통사고 사망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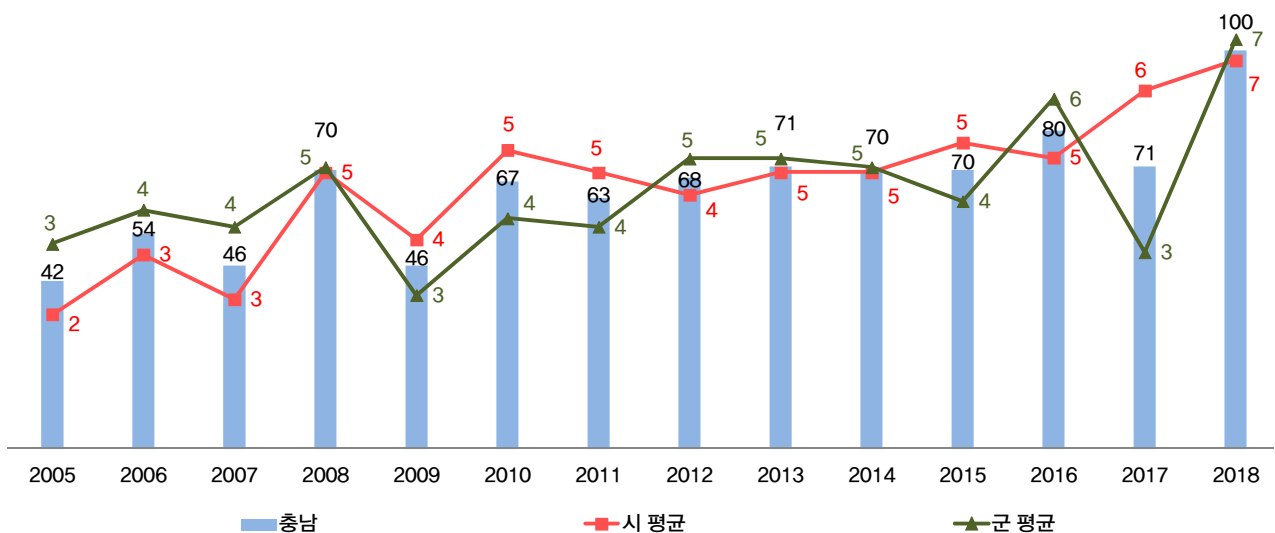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14년간의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, 논산시와 홍성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계룡시와 청양군이 가장 낮게 나타남

- 논산시는 연간 6.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, 홍성군은 연간 5.7명으로 나타남



〈그림 3-17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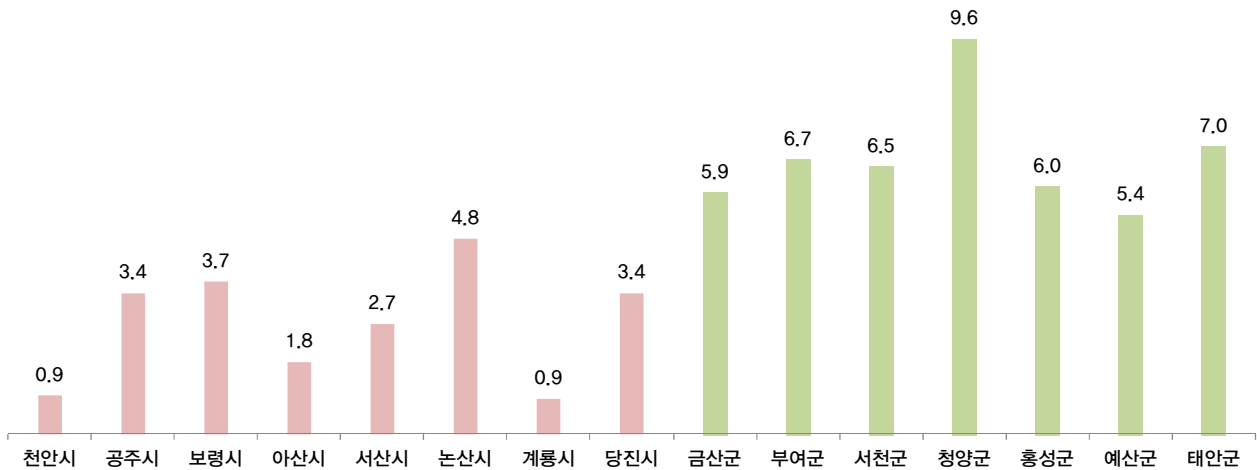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14년간의 사망자수 추이를 살펴보면,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, 시 지역 및 군 지역 모두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



〈그림 3-18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사망자수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살펴보면, 도내에서는 청양군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천안시와 계룡시가 가장 낮게 나타남

- 사망률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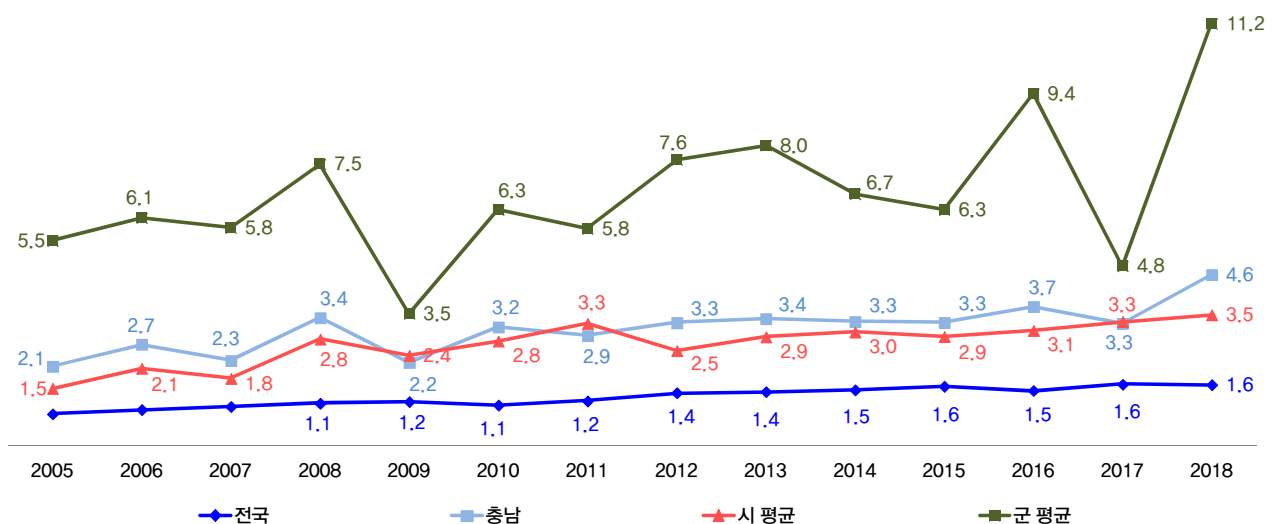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3-19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(10만명당 사망자수 평균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,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 혹은 약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, 군 지역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

- 특히 2009년과 2017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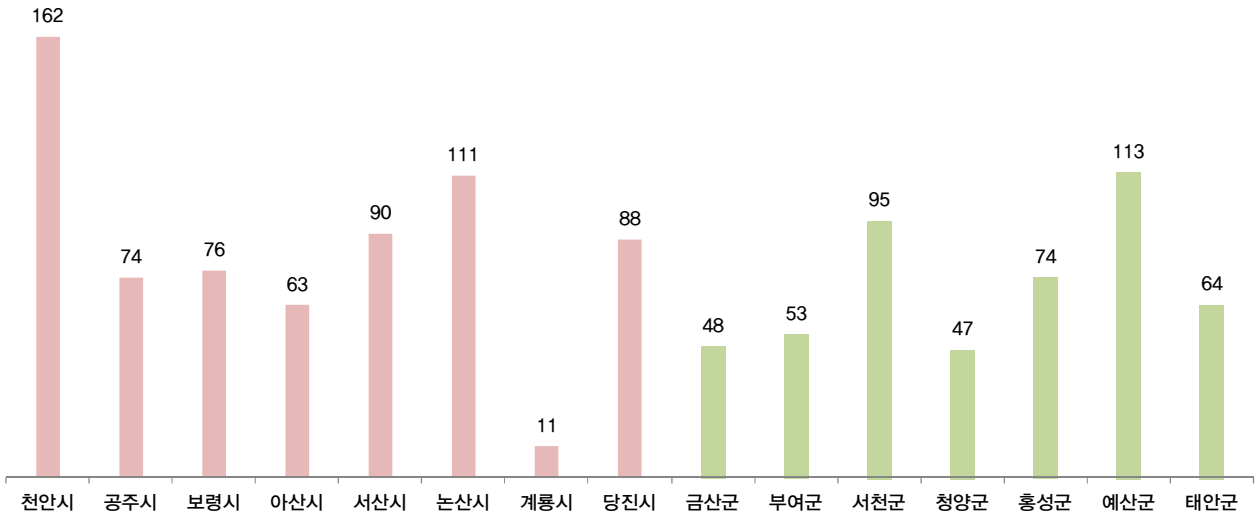
- 도내 모든 지역에서 전국 평균 사망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



〈그림 3-20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사망자수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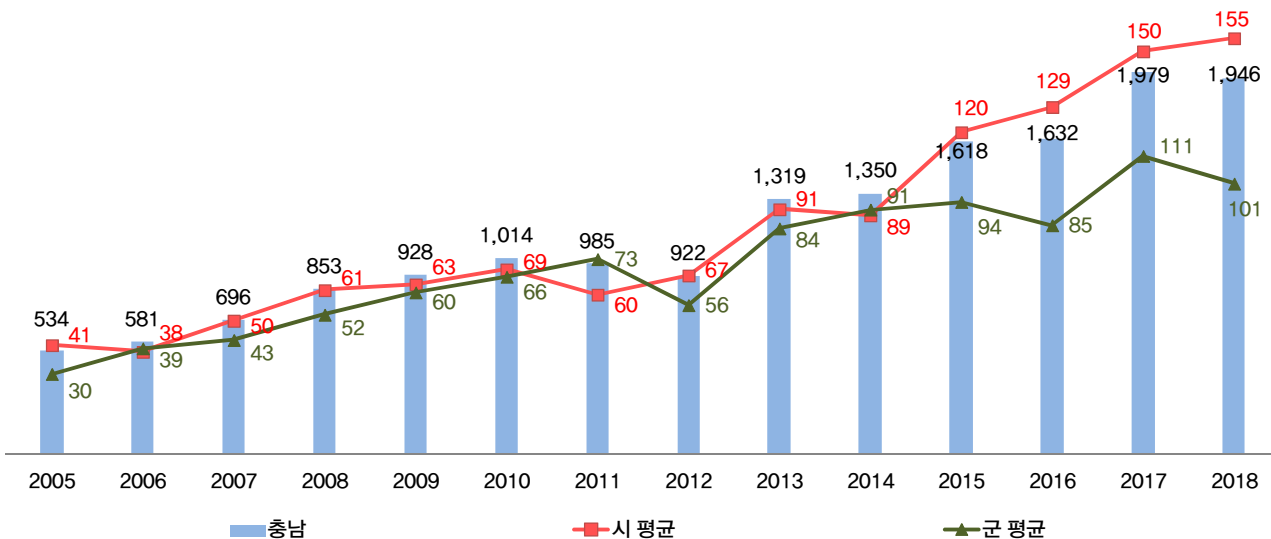
### 3. 교통사고 부상자수

- 최근 14년간 부상자수를 살펴보면, 도내에서는 천안시가 연간 16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, 예산군과 논산시가 그 뒤를 잇고 있음
  - 군 지역에서는 예산군에 이어 서천군이 95명으로 높게 나타남



〈그림 3-21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수(평균)(2005~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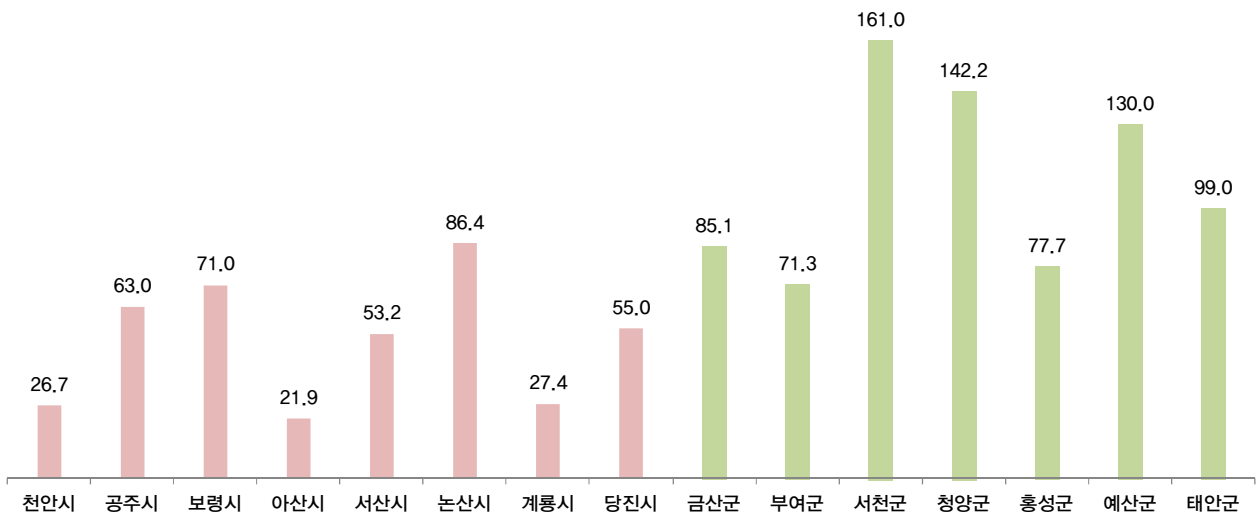
- 부상자에 대한 최근 1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, 부상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군 지역에는 증가폭이 시 지역에 비해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음
  - 특히 군 지역에서는 2018년에는 전년도 111명에 비해 101명으로 감소하였음



〈그림 3-22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부상자수)(2005~2018)

○ 인구 10만명당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부상자수를 보면, 도내에서는 서천군의 부상률이 161.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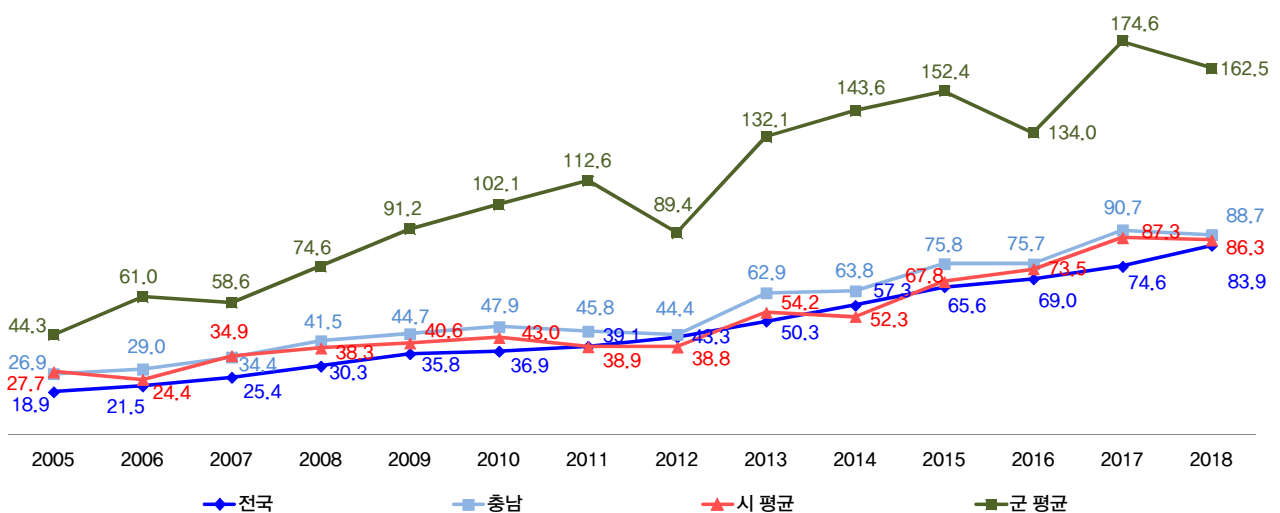
- 상위 4위가 모두 군 지역의 도시들로 서천군, 청양군, 예산군, 태안군의 부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



〈그림 3-23〉 최근 14년간 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수(10만명당 부상자수 평균)(2005~2018)

○ 최근 1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, 군 지역에서의 10만명당 부상자수가 전국 및 충남 전체 평균, 시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

- 전반적으로 충남의 10만명당 부상자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



〈그림 3-24〉 최근 14년간 충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(10만명당 부상자수)(2005~2018)

## 04 시사점 및 방향성

-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주제로 관련 DB를 활용하여 충남에서의 고령운전자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
- 먼저 충남에서의 일반적인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하였는데, 최근 14년간(2005~2018년)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, 전국적으로 연간 220,35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충남에서는 연간 8,724건이 발생하였음
  - 최근 14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과 2015년 두 시기에 변곡점이 있었으나, 현재는 다소 감소세로 돌아섬
  - 충남의 교통사고 발생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425.3건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9번째를 차지하고 있음
-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, 충남은 전국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임(최근 14년 평균 기준)
  -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충남이 연간 22.3명으로 전남(23.2명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므로, 충남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
- 도내 15개 시·군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,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은 청양군(연간 618건)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  -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, 청양군을 포함하여 서천군, 예산군의 수치가 매우 높아 이들 지역은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
  -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보면, 청양군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태안

군, 부여군 및 예산군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 또한 교통사고 위험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음

○ 다음으로 충남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하였는데, 최근 14년간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의해 전국에서 연간 16,2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충남에서는 연간 8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

-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○ 충남에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수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40건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7번째에 해당함

-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, 충남은 전국에서 7번째 수준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, 사망기준으로 볼때는 충남이 연간 3.3명으로 전국 평균 1.3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전국적으로도 3번째에 해당되는 수준임

- 즉, 교통사고 발생은 비교적 무난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, 교통사고 인한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 충남에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음

○ 15개 시·군별로 살펴보면,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서천군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청양군, 예산군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음(인구 10만명당 발생기준)

- 교통사고 사망자 기준으로는 청양군에서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태안군, 부여군, 서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- 교통사고 부상자 기준으로는 서천군이 가장 높았으며, 서천군, 청양군, 예산군, 태안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

- 즉,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서천군, 청양군, 예산군, 태안군을 중심으로 한 군 지역의 대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

○ 이상과 같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았으며, 충남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음

- 먼저, 인구 10만명당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,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률(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)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
- 지역적으로도 도내 군 지역의 대부분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

○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, 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를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운전제한을 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오고 있음

○ 무엇보다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환경으로 바꾸려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

- 특히 충남과 같이 농어촌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도 제한되어 있어 이동권의 제약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
- 단순히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과 함께 주어지는 교통카드와 같은 제도는 도시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유도책이 될 수 있지만, 농촌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는 어려움
- 따라서 고령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여 보완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(예. 서천군 희망택시와 같이 비용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필요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는 방안)

○ 또한 예전에 사용해오긴 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진 ‘실버마크’를 부착하도록 하여 상대운전자 및 주변 운전자로 하여금 배려와 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차 강구해볼 필요가 있음

- 다만, 이는 단순히 마크를 부착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양보운전과 배려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하여 추진해 감으로써 일반인들의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함